

통일신라시대 眼象文 석탑 고찰

김 지 현*

〈목 차〉

- I. 머리말
- II. 통일신라시대 안상문 석탑의 사례와 현상
- III. 석탑에 새겨진 안상문의 유형분류와 석탑 검토
- IV. 석탑의 안상문 수용과 변화
- V. 맺음말

국문요약

본 논문은 통일신라시대 석탑에 등장한 안상문(眼象文)의 유형분류와 전개양상을 파악하여, 석탑에 등장한 안상문이 여타 작품들에 비해 늦은 시기에 나타나는 원인과 수용 및 변화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안상문을 시문한 석탑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논문이다. 통일신라시대 석탑에 안상이 시문된 이른 시기의 석탑은 8세기 후기에 조성된 무장사지 삼층석탑으로, 안상문이 조식(彫飾)된 석탑은 약 19기 정도 확인된다. 이들 석탑에 彫飾된 안상문의 유형분류와 전개양상을 통해 안상문 석탑에 관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먼저 안상문이 석탑에 등장하는 8세기 후기라는 출현 시점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각종 미술품에 등장했던 안상문에 비해 늦은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늦은 시기의 출현은 통일신라시대 전형석탑의 전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즉, 통일신라시대 새롭게 등장한 전형양식의 석탑은 초기 시원적 석탑에 이어 양식이 정립되는 시기를 가진다. 이는 곧 기단부 결구구조의 안정화로 이어진다. 전형양식 석탑의 기단부가 안정화되고 결구구조가 정립된 이후인 8세기 후기에는 석탑에 부조상등장이 눈에 띈다. 더불어 8세기 후기~말기가 되면 안정화된 기단부 중 하층기단의 변화가 모색되고 상층기단의 탱주에 있어서도 2주→1주로 감소한다.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 강사

이러한 감소는 상층기단에 팔부중상이라는 새로운 도상의 등장을 가져왔고, 탕주 1주는 물론 우주 2주도 생략한 변화 위에 안상문을 등장시켰다. 또한 안상문이 석탑의 초기 부조상(浮彫像)들과 비교해도 늦게 등장하는 것은, 실질적 기능은 없되 석탑의 중요한 형식인 탕주와 우주도 한 몫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석탑에 彫飾된 안상문의 유형분류와 전개양상을 살펴보면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초기 안상문은 석탑 상층기단에 등장하지만 이 형식이 일반적인 형식이 아니라 9세기 석탑에서는 하층기단에 시문된 안상 형식이 매우 성행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무장사지 상층기단에 등장한 안상문의 형상은 기존의 작품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안상문이라는 점이다. 석탑에 처음 등장한 안상문의 형식과 양식은 오직 성덕대왕릉의 상석(床石)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 초기 석탑의 안상문이 왕릉의 상석에서 차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왕릉에 보이는 상석의 기능을 통해 안상의 형상은 상각(床脚)을 모방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는 석탑에 처음 등장한 안상문의 상징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렇다고 모든 석탑의 안상문이 床脚의 형상을 표현한 것이 아님은 안상문 내의 부조상과 조선시대 목탑을 구현한 석탑에서의 안상 등을 통해 확인 가능했다.

마지막으로 하층기단의 안상문과 달리 상층기단에 등장한 안상문의 양식은 초기 무장사지 석탑의 안상문 양식을 토대로 다소의 변화 양상을 보이지만 초기의 양식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가 안상의 침두 형태와 호의 형태 등에 뚜렷이 반영되었다. 이를 통해 상층기단에 안상문을 새긴 7기의 석탑은 석탑 조성시 서로 간의 직간접적인 영향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단부의 결구구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숭정리 서석탑의 경우 경주 무장사지 석탑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영향관계 속에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하층기단 안상문은 상층기단의 것과 달리 동시기 불상대좌의 안상문에서 차용·성행하였던 것임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통일신라, 석탑, 안상(眼象), 무장사지(鑿藏寺址), 기단, 결구구조, 부조상(浮彫像)

I. 머리말

불교미술품을 비롯하여 많은 한국의 미술품을 장식하는 문양 중에 ‘안상(眼象)’은 고대부터 즐겨 사용되어 왔다. 비교적 단순한 문양인 안상은 시기와 장르를 막론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폭넓게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상문은 그 기원과 양식의 분류 및 용어의 사용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¹⁾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통일신라시대 석탑에 표현된 안상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통일신라시대 석탑에 안상문이 나타나는 시기는 8세기 후기 경주 무장사지 석탑에서이다.²⁾ 여타의 미술품에서 안상문이 표현된 시기는 약 5세기 경, 불교미술품은 약 7세기 경 등 이른 시기부터 표현되었는데 이와 비교하면 석탑에 안상문이 출현한 시기는 다소 늦은 편에 해당한다. 그리고 석탑에 처음 시문된 안상문의 모습은 이전의 불교미술품을 통해 보아 왔던 일반적인 안상문과 달라 주목된다. 석탑에 등장하는 안상문의 특징적인 형식과 양식은 석탑에서의 안상문 수용과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측면에서 안상문이 처음 등장하는 무장사지 삼층석탑의 그것은 석탑 안상문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석탑 이외 초기 안상문이 등장하는 작품들에서도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1) 한국의 안상문 기원과 유형분류 및 전개에 관한 논문은 고유섭, 『佛國寺의 舍利塔』, 『高裕變全集』3, 동방문화사, 1993, 148~163쪽; 진홍섭, 『韓國의 眼象紋樣』, 『동양학』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74, 247~196쪽; 곽애경, 『韓國 造形物에 나타나는 眼象 및 風穴樣式에 관한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이선주, 『統一新羅時代 眼象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등 4편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이외는 거의 작품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간략하게 언급되었다(박경식, 『통일신라 석조미술 연구』, 학연문화사, 2002, 135쪽; 소재구, 『新羅下代와 高麗時代 僧塔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15~16쪽; 이기선, 『금동단생불상에 대하여: 특히 호림박물관 소장의 대좌를 중심으로』, 『초우황수영박사고회기념 미술사학논총』, 통문관, 1988, 109~118쪽; 이연수, 『新羅後期 禪師塔의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64쪽; 이현수, 『韓國 八角堂形 僧塔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6쪽; 최공호, 『고구려 벽화의 탑(榻): 기원과 쓰임』, 『항산 안휘준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미술사의 정립과 확신』2, 사회평론, 2006, 430쪽; 허상호, 『조선시대 불탑장엄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45~151쪽 外).

2) 경주 무장사지 삼층석탑은 9세기 초~전반에 조성되었다고 알려져 왔다. 대표적으로 박경식, 『KOREAN Art Book 탑과』, 예경, 2001, 186쪽; 『통일신라 석조미술 연구』, 학연문화사, 2002, 78~80쪽; 진홍섭 편저, 『국보11-탑과 I』, 예경산업사, 1986, 66쪽; 『한국의 석조미술』, 문예출판사, 1995, 188쪽 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 김지현, 『경주 靈藏寺址 史蹟과 삼층석탑에 대한 再考』, 『新羅文化』43,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4, 249~284쪽에서 8세기 후기인 해공왕대(765~780)에 조성되었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한편 통일신라시대 석탑에 보이는 안상문의 경우 초기에는 무장사지 석탑에 나타나는 안상문의 양식을 잇는 듯 보이다가, 9세기 중후기가 되면 초기의 형식과 양식이 나타나지 않고 당대 불교미술품에서 흔히 확인되는 안상문의 형식과 양식으로 변화·성행한다. 모든 작품에 있어 특히 양식의 전개과정은 새로운 양식의 등장에서 점차 시기가 흐를수록 양식화·도식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석탑의 경우 초기 등장한 안상문의 양식이 도식화되어 성행하기보다 기존의 불교미술품에 보이는 안상문 양식이 성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안상문을 새긴 석탑의 사례를 토대로 안상문의 유형분류 및 전개 양상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의 분석을 비롯하여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전체 흐름 속에서, 안상문이 다른 미술품보다 늦은 시기에 해당하는 8세기 후기 석탑에 출현한 원인과 안상문의 양식을 통해 석탑에서의 안상문 수용과 의미 그리고 9세기 중후기 이후가 되면 기존의 불교미술품에서 이용되던 안상문이 성행하는 이유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통일신라시대 안상문 석탑의 사례와 현상

지금까지 조사된 통일신라시대 석탑 중 안상문이 표현된 석탑의 사례는 약 19기로 파악된다<표 1>. 가장 이른 시기의 석탑은 무장사지 삼층석탑으로, 8세기 후기 통일신라시대의 수도 경주에서 조성되었다.³⁾ 무장사지 석탑은 이중기단을 갖춘 전형(典型)양식의 석탑으로 상층기단 한 면에 2개의 안상문을, 각기 네 면에 시문하였다(도 1). 무장사지 석탑과 같이 상층기단에 8개의 안상을 새긴 석탑은 8세기 말~9세기 초에 조성된 창녕 술정리 서삼층석탑이 있으며, 9세기 전기의

³⁾ 석탑의 기단부에 안상문이 조성된 사례 중 실제 작품은 아니지만, 경주 석장사지에서 출토된 탑상문전 중 일부에서 확인된다. 지금까지 석장사지에서 출토된 탑상문전의 조성시기는 양지의 활동시기에 맞춰 7세기라는 의견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논문을 통해 석장사지 탑상문전에는 처음 조성되었던 7세기 이외 다른 시기의 것이 혼재되어 있으며, 특히 탑기단에 안상문을 새긴 탑상문전은 8세기 중반~9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김지현, 『慶州 錫杖寺址 博佛 研究』, 『미술사학연구』266, 한국미술사학회, 2010, 44~45쪽). 본고에서는 시기 구분을 전기 : 00~25년, 중기 : 25~50년, 후기 : 50~75년, 말기 : 75~00년으로 두었기에 상기의 논문에서 8세기 중반은 본고의 시기 구분 상 8세기 후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탑상문전에 새겼기 때문에 크기가 작고 실제의 안상문을 단순화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상세한 양식 분류를 하기에 정확성이 떨어진다. 이에 탑상문전에서 보이는 석탑의 안상문을 전체 석탑의 사례에서는 제외하였다.



도 1. 무장사지 삼층석탑 상층기단의 안상문 통일신라, 8세기 후기, 경북 경주



도 2. 기성동 삼층석탑 상층기단의 안상문 통일신라, 9세기 전기, 경북 칠곡

칠곡 기성동 삼층석탑은 상층기단 각 면에 1개의 안상을 새겼다(도 2).⁴⁾

8세기 말~9세기 전기에 조성된 구례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에서도 기단부에 안상문이 확인된다(도 3).⁵⁾ 그러나 이 탑은 전형양식의 석탑이 아닌 이형(異型)양식의 석탑으로 하층기단에 안상문을 조식하였다. 한 면에 3개의 안상문을 두어 총 12개를 시문하였으며, 안상문 내에는 각기 1구씩의 주악천인상을 부조하여 무장사지 석탑과는 다른 현상을 보인다. 이형석탑으로 9세기 후기에



도 3.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 하층기단의 안상문, 통일신라, 8세기 말기~9세기 전기, 전남 구례

조성된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은 기단부의 형태가 불상 대좌의 모습과 동일하

4) 창녕 술정리 서삼층석탑의 경우 조성시기를 일반적으로 9세기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무장사지 삼층석탑의 조성시기가 8세기 후반인 이상 술정리 서삼층석탑의 조성시기 역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면밀한 연구를 통해 시기를 비정해야 하지만 본고에서는 결구구조, 안상의 문양 등을 통해 술정리 서삼층석탑의 조성시기를 8세기 말~9세기 초로 전제하고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5) 구례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의 편년은 8세기 중기~9세기 전기까지 그 폭이 넓다. 먼저 8세기 중기·중엽설은 박경식, 『KOREAN Art Book 탑과』, 예경, 2001, 195쪽; 장충식, 『新羅石塔研究』, 일지사, 1987, 151쪽;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라남도의 석탑』 I, 2005, 39쪽; 정영호는 『한국의 석조미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71쪽에서 이 탑의 조성시기를 8세기 중엽 이후로 파악하고 있다. 8세기 말은 강우방·신용철, 『술』, 2003, 189쪽; 8세기는 진홍섭, 『韓國의 石造美術』, 문예출판사, 1995, 253쪽; 9세기 전기는 이순영, 『華嚴寺 四獅子三層石塔의 건립시기에 관한 考察』, 『문화사학』34, 한국문화사학회, 2010, 82~84쪽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 석탑의 편년을 불국사 무구정광탑(다보탑) 조성 이후에 두고 기존의 편년설을 수용하여 8세기 말~9세기 전기로 파악하고자 한다.



도 4. 도피안사 삼층석탑 기단부 팔각 대석의 안상문, 통일신라 9세기 후기, 강원도 철원(박경식, 『한국의 석탑』, 학연문화사, 2008, 367쪽 도판 전재)



도 5. 법수사지 삼층석탑 하층기단의 안상문, 통일신라 9세기 전기, 경북 성주

도 4. 도피안사 삼층석탑 기단부 팔각 대석의 안상문, 통일신라 9세기 후기, 강원도 철원(박경식, 『한국의 석탑』, 학연문화사, 2008, 367쪽 도판 전재)이며, 하층기단 아래 팔각 형태로 조성된 대석의 한 면에 1개씩 총 8개의 안상문을 새겼다고도 4). 하층기단에 안상문을 배치하고 한 면에 3개씩 표현한 석탑의 사례는 9세기 전기의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도 5)을 비롯하여 구례 화엄사 서오층석탑, 9세기 중·후기의 영양 화천동 삼층석탑, 9세기 후기~9세기 말기의 경산 불굴사 삼층석탑, 인제 한계사지 남삼층석탑, 9세기 말기의 양산 통도사 삼층석탑, 합천 해인사 삼층석탑, 9세기 말기~10세기 전기의 안동 옥동 삼층석탑이 있다. 이 탑들은 모두 전형양식의 석탑이며, 구례 화엄사 서오층석탑과 영양 화천동 삼층석탑의 경우 안상 내에 각기 1구씩의 십이지신장상을 조각하였다.

9세기 중기의 전반에 해당하는 835년경에 조성된 부산 범어사 삼층석탑의 경우 하층기단 한 면에 3개의 안상문이 표현되어 전술한 석탑들과 동일하다. 그러나 상층기단에도 한 면에 각기 1개씩의 안상을 새겨 상하층기단에 모두



도 6. 범어사 삼층석탑 상하층기단의 안상문, 통일신라 약 835년경, 부산 금정구

안상문이 나타난다(도 6). 이렇게 상하층기단 모두 안상문을 표현한 석탑은 835년 경 범어사 삼층석탑 이외에도 9세기 전기~중기의 경주 승소곡사지 삼층석탑과 9세기 말기의 영동 영국사 삼층석탑, 9세기 말기~10세기 초의 김천 청암사 수도암 동삼층석탑이 있

다.⁶⁾ 이 중 승소곡사지 석탑은 하층기단과 상층기단의 한 면에 2개씩 안상을 조식하여 각기 총 8개의 안상문을 시문한 것 이외에도 초층탑신에 1개의 안상문을 각 면에 새겼다(도 7). 그리고 초층탑신의 안상문 내부에는 각기 1구씩의 사천왕상을 조각하였다. 영국사 삼층석탑은 하층기단과 상층기단에 안상을 시문하였는데, 하층기단에는 한 면에 3개의 안상을, 상층기단에는 한 면에 1개의 안상을 배치하였다. 청암사 수도암 동삼층석탑은 단층기단



도 7. 승소곡사지 삼층석탑 상하층기단 및 초층탑신의 안상문, 통일신라, 9세기 전기~중기, 경북 경주

의 형식으로 현재 탑구석이 기단 주위에 배치되어 있다. 1968년의 사진에는 현재의 탑구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후 어느 시점에 새로이 추가된 부재로 추정된다.⁷⁾ 단층기단 한 면에 1개의 안상을 각기 새겼으며, 탑구석에도 안상이 확인된다.

9세기 후기인 약 867년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봉화 취서사 삼층석탑은 삼중기단 형식이지만, 현재 중층기단을 제외한 상층기단과 하층기단 일부가 남아 있으며, 하층기단 한 면에 4개의 안상을 표현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

6) 김천 청암사 수도암 동서삼층석탑의 편년은 9세기 후기(박경식, 앞의 책, 2001, 171쪽), 9세기 후반(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상북도 석탑』7, 2013, 141쪽)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동탑과 서탑의 경우 석탑의 형식, 결구구조 및 조형성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서탑의 경우 9세기 후기~말기 경으로 편년이 추정되며, 동탑은 1매의 단층기단으로 면석을 처리한 점, 기단부와 탑신부의 조형성, 사방불의 도상과 배치 및 조각 수법 등으로 보아 서탑보다 다소 늦은 시기인 9세기 말기~10세기 초로 추정된다.

7)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13, 42쪽 ; 1968년 사진은 161쪽 참조.

표 1. 통일신라시대 眼象文 석탑 사례

연번	석탑 명칭	시기	석탑 유형	안상		소재지	비고
				위치(형태)	한변數		
1	무장사지 삼층석탑	8C後	일반형 (전형양식)	상층기단(방형)	2	경북 경주	
2	술정리 서삼층석탑	8C末 9C初	일반형 (전형양식)	상층기단(방형)	2	경남 창녕	
3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	8C末 9C前	특수형 (이형양식)	하층기단(방형)	3	전남 구례	안상 내부 주악천인상
4	기성동 삼층석탑	9C前	일반형 (전형양식)	상층기단(방형)	2	경북 칠곡	
5	범수사지 삼층석탑	9C前	일반형 (전형양식)	하층기단(방형)	3	경북 성주	
6	범어사 삼층석탑	약 835	일반형 (전형양식)	상층기단(방형) 하층기단(방형)	1 3	부산	
7	화엄사 서오층석탑	9C前 9C中	일반형 (전형양식)	하층기단(방형)	3	전남 구례	안상 내부 십이지신장상
8	승소곡사지 삼층석탑	9C前 9C中	일반형 (전형양식)	초층탑신(방형) 상층기단(방형) 하층기단(방형)	1 2 2	경북 경주	초층탑신의 안상 내부 사천왕상
9	화천동 삼층석탑	9C中 9C後	일반형 (전형양식)	하층기단(방형)	3	경북 영양	안상 내부 십이지신장상
10	도피안사 삼층석탑	9C後	특수형 (이형양식)	하층기단(팔각형)	1	강원 철원	
11	취서사 삼층석탑	9C後	일반형 (삼층기단)	하층기단(방형)	4	경북 봉화	
12	불굴사 삼층석탑	9C後 9C末	일반형 (전형양식)	하층기단(방형)	3	경북 경산	
13	한계사지 남삼층석탑	9C後 9C末	일반형 (전형양식)	하층기단(방형)	3	강원 인제	
14	통도사 삼층석탑	9C末	일반형 (전형양식)	하층기단(방형)	3	경남 양산	
15	해인사 삼층석탑	9C末	일반형 (삼층기단)	하층기단(방형)	4	경남 함천	기단부 수리복원
16	영국사 삼층석탑	9C末	일반형 (전형양식)	상층기단(방형) 하층기단(방형)	1	충북 영동	
17	청암사 수도암 삼층석탑	9C末 10C初	일반형 (단층기단)	단층기단(방형)	3	경북 김천	안상 새긴 탑구석 후대 첨가
18	증심사 삼층석탑	9C末 10C初	일반형 (전형양식)	하층기단(방형)	3	광주	
19	옥동 삼층석탑	9C末 10C初	일반형 (전형양식)	하층기단(방형)	3	경북 안동	
*	실상사 백장암 석탑 기단부 추정 석재	9C前 9C中	-	하층기단 추정	-	전북 남원	안상 내부 신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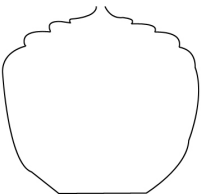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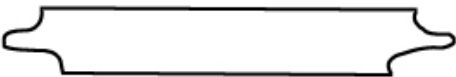
Ⅲ. 석탑에 새겨진 안상문의 유형분류와 석탑 검토

1. 안상문의 유형과 전개양상

<표 1>을 토대로 석탑에 새겨진 안상문의 유형을 분류하고 양식적 변화 요소를 통해 통일신라시대 석탑 안상문의 전개양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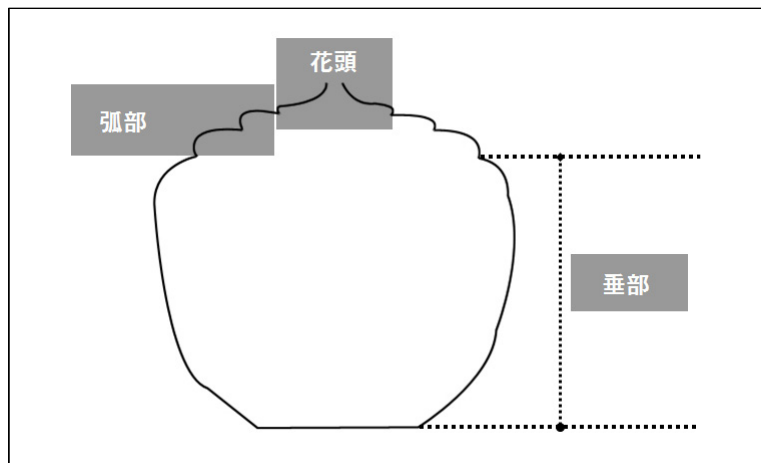
통일신라시대 석탑 약 19기에 표현된 안상문을 전체의 형태에 따라 분류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안상문의 상단이 여러 개의 호(弧)로 이루어진 곡선을 이루며 단면의 모습은 마치 꽃의 형상과 유사한 것, 그리고 한자 ‘아(亞)’자와 유사한 형상을 보이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어 전자를 <화형(花形)>, 후자는 <아형(亞形)>으로 명명해 보았다<표 2>.

표 2. 안상문의 전체 형태 분류

花形	亞形
	

<花形>의 안상문은 다시 화두(花頭), 호부(弧部), 수부(垂部)로 구분할 수 있다<삽도 1>.

삽도 1. <花형> 안상문의 명칭



<花形> 안상문에서 花頭는 안상의 머리 부분을 지칭하며, 花頭에서 이어져 한 번 이상의 곡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弧部, 호부에서 지면까지 수직으로 드리워지는 안상의 좌우선(左右線)을 임의상 垂部라고 칭하였다.

먼저 花頭의 경우 호부의 곡선을 이루는 弧와 달리 유독 두드러지게 뾰족한 형태, 그리고 호와 유사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를 <첨두형(尖頭形)>, 후자는 <평두형(平頭形)>으로 분류하였다<표 3>. <첨두형>은 다시 탄력적인 곡선으로 마치 납작한 보주의 형상을 띠는 보주형(寶珠形), 중괄호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90도 돌린 모습과 유사한 <괄호형>, 尖頭의 끝부분만 남은 것처럼 ‘^’ 모습을 보이는 <삿갓형>의 3가지 양식으로 구분된다<표 3 참조>. 그리고 花頭의 상부(上部)를 처리함에 있어 花頭의 양 끝선을 연결하지 않은 <열린형>과 연결한 <닫힌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3 참조>.

표 3. 花頭의 유형 분류

花頭	형태	<尖頭>形			<平頭>形
		보주형 양식	괄호형 양식	삿갓형 양식	
	열린형				닫힌형
	끝처리				

둘째, 弧部의 형태는 크게 탄력적이고 장식적인 선으로 마치 파도가 너울을 이루는 듯한 파문형(波文形)과 완만한 반원으로 연결되어 마치 구름의 형상과 유사한 운문형(雲文形)으로 구분된다<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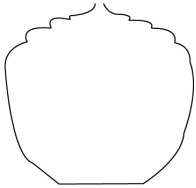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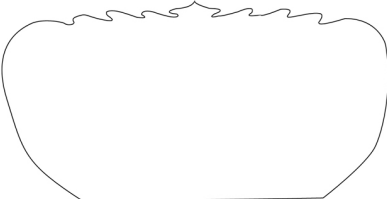
표 4. 弧部의 유형 분류

弧部	파문형	운문형

셋째, 垂部 외곽선의 완만 정도와 길이에 따른 조형감이다. 수선(垂線)의 길이가 길고 호부에서 수부의 연결이 직선적인 것은 안상문이 길쭉한 형태 즉,

폭보다 높이가 더 강조된 것이다. 반대로 弧部에서 이어지는 각 部 선의 굴곡이 심하며 짧은 것은 높이보다 폭이 더 큰 조형미를 가진다. 따라서 垂部는 안상문의 전체적인 조형미를 결정하는데, 안상의 높이가 폭보다 더 큰 것은 <수직형>, 폭이 더 큰 것은 <수평형>으로 구분해 보았다<표 5>.

표 5. 垂部の 유형 분류

수직형	수평형
	

이상의 유형을 토대로 통일신라시대 석탑에 새긴 안상문의 분류와 위치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에 따르면 통일신라시대 석탑에 시문된 안상의 형태는 크게 <화형>과 <아형>으로 구분되며 <화형>이 일반적 형식이다. <아형>이 나타나는 석탑은 19기 중 경주 승소곡사지 삼층석탑과 영양 화천동 삼층석탑,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의 기단으로 추정되는 석재에서 확인되며, 모두 하층기단에 시문된 것으로 파악된다. 3기를 제외한 나머지 석탑들은 모두 <화형>을 보여 통일신라시대 석탑에서의 안상문 형태는 <화형>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화형>은 다시 花頭의 모습에 따라 <침두형>과 <평두형>으로 구분되며, <침두형>이 먼저 등장한다. <침두형>은 다시 침두의 모양에 따라 <침두-보주형>, <침두-괄호형>, <침두-삿갓형>으로 양식적 세분화를 보인다. 또한 弧部는 호의 모습에 따라 다시 <파문형>, <운문형>으로 구분되며, 垂部를 중심으로 한 안상의 조형미는 <수직형>, <수평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 석탑은 전술한 花頭, 弧部, 垂部의 조합으로 다양한 안상문이 시문된다. 이를 토대로 통일신라시대 석탑 안상문의 양식적 특징과 전개는 크게 8세기 후기~9세기 전기, 9세기 전기~중기, 9세기 후기~말기, 9세기 말기~10세기 전기의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표 6. 통일신라시대 석탑에 새겨진 안상문의 유형분류

연번	탑 명칭	시기	안상문 위치 (한 면의 數)		안상문의 유형분류												
			기단부		탑신부	전체 형태		花形 안상문								垂部	
			상층	하층		花頭		弧部		垂部		수직형	수평형				
						尖頭	平頭	돌린형	단힌형	파문형	운문형						
花형	亞형	보주형	팔호형	삿갓형	平頭	돌린형	단힌형	파문형	운문형	수직형	수평형						
1	무장사지 삼층석탑	8C後	(2)			○	●			●		○		■			
2	술정리 서석탑	8C末 9C初	(2)			○	●			●		○		■			
3	화엄사 사사지석탑	8C末 9C前		(3)		○	●			●		○	○	■			
4	기성동 석탑	9C前	(1)			○	●			●		○		■			
5	범수사지 석탑	9C前		(3)		○	●		●	●		○		■			
6	범어사 석탑	약 835	(1)	(3)		○	●	●	●	●		○		■			
7	화엄사 서오층탑	9C前 9C中		(3)		○			●	●		○		■			
8	승소곡사지 석탑	9C前 9C中	(2)	(2)	(1)	○	○	●		●		○		■			
9	화천동 석탑	9C中 9C後		(3)			○										
10	도피안사 석탑	9C後	(1)			○		●		●		○		■			
11	취서사 석탑	9C後		(4)		○			●	●		○		■			
12	불굴사 석탑	9C後 9C末		(3)		○	●			●		○		■			
13	한계사지 남석탑	9C後 9C末		(3)		○		●		●		○		■			
14	통도사 삼층탑	9C末		(3)		○			●	●		○		■			
15	해인사 석탑	9C末		(4)		○		●		●		○		■			
16	영국사 석탑	9C末	(1)	(3)		○		●		●		○		■			
17	청암사 동탑	9C末 10C初	(1)			○	●	●	●	●		○		■			
18	증심사 석탑	9C末 10C初		(3)		○		●		●		○		■			
19	육동 석탑	9C末 10C初		(3)		○			●	●		○		■			
*	백장암 석재	9C前 9C中					○										

먼저 8세기 후기~9세기 전기로 석탑에 시문된 안상의 초기적 양식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보이는 花頭의 양식은 <침두-보주형>이며, 花頭의 끝은 연결되지 않은 <열린형>, 호의 형태는 <파문형>, 수부(垂部)를 중심으로 한 안상의 조형미는 안상문의 폭보다 높이가 큰 <수직형>이 나타난다. 그리고 花頭와 호부(弧部)는 동일선상에 있지 않고 위치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안상의 조형미가 <수직형>인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침두-보주형>은 통일신라시대 전반에 걸쳐 등장하지만 19기 중에서 7기에서만 확인된다. 8세기 후기의 경주 무장사지 삼층석탑, 8세기 말기~9세기 초 창녕 술정리 서삼층석탑, 8세기 말기~9세기 전기 구례 화엄사 사자삼층석탑, 9세기 전기 칠곡 기성동 삼층석탑, 835년 부산 범어사 삼층석탑, 9세기 후기~말기 경산 불굴사 삼층석탑, 9세기 말기~10세기 전기 김천 청암사 수도암 동삼층석탑이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8세기 후기~말기에 2기, 8세기 말기~9세기 초 1기, 9세기 전기 1기, 9세기 중기 1기, 9세기 후기~말기 1기, 9세기 말기~10세기 전기 1기의 시기적 분포를 보여 사실상 <침두-보주형>은 무장사지 삼층석탑의 안상문에서 처음 등장한 이래, 8세기 후기~9세기 전기에 주로 제작된 안상문의 초기적 양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7기 중에서도 이른 시기에 조성된 무장사지 삼층석탑, 술정리 서삼층석탑, 화엄사 사자삼층석탑에 표현된 <침두-보주형> 안상문은 花頭의 上部 끝이 이어지지 않은 <열린형>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명확한 시기성을 가진다. 예외적으로 9세기 말기~10세기 전기 청암사 수도암 동삼층석탑에서 <침두-보주-열린형>이 확인되는데, 초기의 것은 이어지지 않는 花頭의 열린 폭이 좁은데 반해 청암사 수도암 동삼층석탑의 것은 花頭의 열린 폭이 넓은 차이를 보인다(도 8-1·8-2). 弧部の 형태는 장식성이 강한 <침두-보주형>과 어울리는 유려하고 탄력적인 곡선으로 이루어진 <파문형>이 함께 조합되며, 안상문의 높이가 폭보다 큰 <수직형>으로 제작되었다. <파문형>과 <수직형>이 함께 조합되는 방식 역시 초기



도 8-1. 경주 무장사지 석탑 안상문의 <열린형> 花頭의 모습



도 8-2. 김천 청암사 수도암 동삼층석탑 안상문의 <열린형> 花頭의 모습

3기의 석탑에서만 나타나 안상문의 고식이자 시기성을 가지는 양식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안상문의 위치는 8세기 후기, 8세기 말기~9세기 초의 무장사지 삼층석탑과 술정리 서삼층석탑의 경우, 상층기단 한 면에 2개씩 시문되는 형식이 나타나며, 8세기 말기~9세기 전기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에서는 하층기단 한 면에 3개씩 시문되어 형식적·양식적 변화를 보인다(도 3 참조). 안상문이 상층기단 한 면에 2개씩 조각되는 사례는 무장사지 삼층석탑, 술정리 서삼층석탑 이외 9세기 전기~중기의 경주 승소곡사지 삼층석탑이 있다.⁸⁷⁾ 그리고 하층기단 한 면에 3개의 안상을 새기는 사례는 9세기 전기 범수사지 삼층석탑, 범어사 삼층석탑, 9세기 전기~중기 화엄사 서오층석탑, 9세기 중·후기 영양 화천동 삼층석탑, 9세기 후기~말기 불굴사 삼층석탑, 인제 한계사지 남삼층석탑, 9세기 말기 통도사 삼층석탑, 해인사 삼층석탑, 영국사 삼층석탑, 9세기 말기~10세기 전기 중심사 삼층석탑, 옥동 삼층석탑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상층기단보다 하층기단에 안상문을 새기는 형식이, 그리고 하층기단 한 면에 3개의 안상을 새기는 방식이 통일신라시대 석탑 안상문의 일반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9세기 전기~중기에는 새롭게 <평두형>과 <침두-괄호형>의 花頭가 나타난다. 범수사지 삼층석탑과 범어사 삼층석탑에서부터 등장하며, 이후 석탑의 안상문 花頭로 꾸준히 이용된다.⁸⁸⁾ 이 시기 <침두-괄호형>은 상층기단에, <평두형>은 하층기단에 주로 위치한다. 835년경의 범어사 삼층석탑은 상층기단에 새긴 안상문에서 <침두-보주형>과 <침두-괄호형>이 혼재되어 나타나, <침두-보주형>의 약화된 모습이 <침두-괄호형>으로 표현됨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침두-보주형>에서는 花頭의 끝이 이어지는 <단힌형>이 기성동 삼층석탑에서 새롭게 등장한다. <침두-보주형>을 제외한 <침두-괄호형>과 <침두-삿갓형> 그리고 <평두형>은 모두 <단힌형>으로 표현되어, <침두-보주-단힌형>을 비롯한 花頭에서의 <단힌형>은 통일신라시대 석탑 안상문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평두형>으로 시문된 안상문 중 9세기 전기~중기 화엄사 서오층석탑의 경우 <단힌형>과 <열린형>이 함께 등장하는 유일한 사례인데, 이는 안상문 내부에 부조된 조각상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침두-보주-단힌형>은 9세기 전기 칠곡 기성동 삼층석탑, 835년경 범어사 삼층석탑, 9세기 후기~말기 경산 불굴사 삼층석탑 등에서 확인된다. 弧部에서는 <운문형>이 새롭게 나

⁸⁷⁾ 석장사지 탑상문전에 표현된 석탑의 기단부 안상문 역시 한 면에 2개씩 새기는 형식을 보인다 (김지현, 앞의 논문, 2010, 35쪽, 도1 참조).

⁸⁸⁾ 범수사지 삼층석탑의 경우 하층기단에 나타나는 안상문의 花頭가 거의 <평두형>이지만, 일부 도식화된 <침두-보주형>이 관찰되기도 한다.

타나는데, 안상의 조형에 있어 역시 새롭게 등장하는 <수평형>과 함께 조합되어 제작된다. 그리고 이들 弧部와 垂部는 거의 동일선상에 함께 위치하여 各部 간의 위치 차이를 보였던 <파문형>과 <수직형>의 조합과 다른 조형을 보인다. 사실 弧部の <운문형>은 8세기 말~9세기 전기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에서 <파문형>과 혼재되어 언뜻 그 모습을 나타내지만, 본격적으로 조성된 시기는 9세기 전기 이후로 보인다. 안상문에서 <弧部-파문형>/<垂部-수직형> 그리고 <弧部-운문형>/<垂部-수평형>의 조합에서 전자는 각 부 간의 차이가 나며, 후자는 각 부가 거의 동일선상에서 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칠곡 기성동 삼층석탑의 경우 <弧部-파문형>과 <垂部-수평형>으로 나타나며, 각부 간의 위치도 차이를 두는 방식에서 동일선상에 두는 방식의 과도기적 모습이 간취된다. 이후 조성되는 석탑에서는 <弧部-운문형>/<垂部-수평형> 그리고 각 부 간의 위치가 동일선상에 위치하는 조합으로 제작·변화를 보이는데, 이러한 형식과 양식이 통일신라시대 하층기단 안상문에서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19기의 석탑 중 기성동 삼층석탑과 같은 예외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례는 9세기 말~10세기 초의 청암사 수도암 동삼층석탑에서만 확인된다.

9세기 후기~10세기 전기에는 花頭의 형태에서 <침두-삿갓형>이 나타난다. <침두-삿갓형>은 <평두형>과 매우 유사하며, <평두형>과 같이 하층기단에만 조성된다. 그리고 하층기단 한 면에 4개의 안상을 새긴 형식적 변화도 이 시기에 나타난다. 봉화 취서사 삼층석탑, 해인사 삼층석탑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들이 삼중기단의 석탑임을 감안할 때 단정할 수 없지만 하층기단 한 면에 4개 혹은 그 이상의 안상문을 새기는 방식은 9세기 새롭게 등장하는 삼중기단 형식의 석탑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9세기 말에는 弧部에서 <파문형>이 도식화되어 마치 <거치형(鋸齒形)>과 같은 양상도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영동 영국사 삼층석탑의 안상문에서 확인되는데, 특히 이 안상문 양식은 이후 고려시대 등장하는 안상문 양식과 연계된다. 이러한 양식적 특징을 조합한 안상문의 시기별 전개 양상은 <표 7>과 같다.

표 7. <花形> 眼象文의 양식과 전개

양식	시 기		8세기 후기 (750~775)	8세기 말기 (775~800)	9세기 전기 (800~825)	9세기 중기 (825~850)	9세기 후기 (850~875)	9세기 말기 (875~900)	10세기 전기 (900~925)
	열린형	첨두형	보주형	수각형 (차)	수각형 (차)	주악친인상			
닫힌형	평두형	과문형	수평형 (차)						
			수평형 (동)		심이지신장상				
	첨두형	과문형	수각형 (차)						
			수평형 (동)						
평두형	순문형	발호형	수각형 (차)						
			수평형 (동)						
		삿갓형							
	평두형	순문형	수평형 (동)						

* 差 : 各部 間의 위치를 달리하여 시문, 同 : 各部 間의 위치를 동일하게 시문

工)의 이동을 의심케 할 만큼 같은 양식을 보이는데, 향후 다른 석탑의 상층기단에 시문되는 안상문에서 일부 유사한 형식 혹은 양식이 확인되기도 하지만, 이처럼 동일한 양식과 형식을 보이는 사례는 없다. 따라서 석탑의 동일한 결구구조 및 안상문의 형식과 양식을 통해, 8세기 말기~9세기 초 경주에서 창녕으로의 직접적인 석탑 조영 기술의 전파를 짐작할 수 있다. 경주와 창녕의 밀접한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는 인양사비(仁陽寺碑)에서도 확인된다. 이 비에는 혜공왕 7년(771)에서 헌덕왕 2년(810)년에 걸쳐 창녕에 위치한 인양사의 탑과 금당 등을 조성 및 수리·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조달 상황을 적고 있다.¹¹⁾ 더불어 인양사 이외 창녕에 소개한 사찰명도 기록되어 있다. 내용 중에서 인양사가 경주의 봉덕사(奉德寺)와 영흥사(永興寺), 천암사(天巖寺), 보장사(寶藏寺) 등에서 곡식 2천 7백 13석을 시납 받은 혹은 인양사 소속의 승려가 이들 4사에 시납한 기록이 주목되는데, 당시 창녕과 경주의 불교 교류를 추정할 수 있는 사례라 하겠다.¹²⁾ 특히 경주의 봉덕사와 영흥사는 성전사원(成典寺院)으로 추정된다.¹³⁾ 성전은 왕실에서 건립하는 사찰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던 곳으로 일곱 사찰을 관리하였는데, 그 중 두 사찰이 인양사 혹은 인양사 소속의 승려와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창녕읍 교동에 위치했던 인양사는 현재 창건배경을 알 수 없다. 그러나 경주의 성전사원 두 곳과 관련이 있으며, 약 40년 간 불사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고, 이 기간에 사용한 곡식이 15,594석의 규모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당시 인양사의 사세를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인양사비에 기록된 원지사(苑池寺), 상락사(常樂寺), 대곡사(大谷寺)는 인양사와 관련 깊은 사찰임에는 분명하다. 짧은 기록이지만 신해년에서 경인년 사이 창녕에서는 인양사를 비롯하여 많은 佛事 활동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인양사비에 동일한 용어로 적시한 바 없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이 당시 술정리 서삼층석탑도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¹⁴⁾

11) 인양사비에 대한 내용은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3,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234~240쪽 참조. 이 비의 성격에 대해서는 인양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 사원의 재정지출 내역서 혹은 사원조영의 경비내역서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문명대, 『仁陽寺金堂治成碑文의 한 考察 : 佛教 造形活動의 經濟的 側面을 中心으로』, 『新羅伽倻文化』11, 1980, 11쪽), 인양사비문 뒤에 조각된 승려의 불사활동에 대한 기록이라는 연구도 있다(하일식, 『昌寧仁陽寺碑文의 研究 : 8세기 말~9세기 초 신라 지방사회의 단면』, 『한국사연구』95, 한국사연구회, 1996, 48~53쪽).

12) 문명대, 위의 논문과 최연식(앞의 책에서 역주)은 곡식을 시납한 주체를 봉덕사를 비롯한 3사로 이해하였고, 하일식(앞의 논문, 1996, 44~47쪽)과 남풍현(『昌寧仁陽寺碑銘』, 『吏讀研究』, 태학사, 2000)은 비문에 조각된 인양사 소속의 승려가 왕경의 4사에 곡식을 준 주체로 해석하였다.

13) 『三國史記』권38 잡지 제7 職官 上.

8세기 말~9세기 초기 창녕과 경주의 불교문화 교류는 인양사비와 술정리 서삼층석탑 등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¹⁴⁾

8세기 말~9세기 전기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은 이형석탑의 특수성으로 인해 하층기단에 안상문이 조성되어 위치의 이동이 나타난다(도 3 참조). 하층기단에 배치한 형식은 다르지만, 안상문의 형식과 양식은 무장사지 삼층석탑과 술정리 서삼층석탑과 유사하다. 차이점이라면 弧部의 형태로 <파문형>과 <운문형>이 함께 나타나며, 안상 내 부조상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부조상을 통해 花頭의 이어지지 않은 부분의 폭이 무장사지와 술정리사지 석탑의 것보다 넓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한 면에 새긴 안상의 숫자도 상층기단의 2개가 아닌 3개로 차이가 있다. 이는 상층기단보다 한 면의 폭이 넓은 하층기단 면석이라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기단의 결구는 7매의 석재를 엮물린 구조로 무장사지 삼층석탑과 술정리 서삼층석탑과 다르다.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의 하층기단에서 보이는 결구구조는 8세기 후기부터 경주에서 조성된 석탑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다.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이 이형양식의 석탑이라 경주지역의 전형양식의 석탑과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경주에서는 8세기 후기부터 하층기단의 결구구조의 변화를 시도하면서 석탑에서의 다양한 변화를 꾀한다.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은 경주에서 8세기 후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이형석탑의 형식과 8세기 후기부터 등장한 초기 안상문 양식을 기본으로 제작하여 당시 경주 지역의 불교문화를 빠르게 수용·변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주 지역과 전라도 사이의 불교문화 교류를 엿볼 수 있는 사례는 석탑은 아니지만 754~755년에 조성된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의 제작에 참여한 인물들의 주거지역을 통해 참조할 수 있다.¹⁶⁾

14) 박홍국은 술정리 동삼층석탑을 인양사비문에 등장한 大谷寺 石塔으로 추정하였다(박홍국, 『昌寧 仁陽寺碑文의 塔 關聯記事에 대한 검토』, 『신라문화』3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8, 236~238쪽). 술정리 서삼층석탑의 경우 810년 당시 健實하고 안정감 있는 석탑이 주류를 이루던 시기임을 들어, 그리고 진흥섭의 술정리 서삼층석탑에 대한 의견 즉, 고준한 탑신과 무질서한 결구상태 등으로 동삼층석탑과 상당한 간격이 있는 9세기에 조성된 석탑이라는 견해를 수용하여 9세기 초경인 810년에 조성된 것으로 보기 힘들어 대곡사 석탑으로 비정하기는 어렵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8세기 후기 무장사지 석탑과의 형식 및 양식을 통해 볼 때 8세기 말~9세기 초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15) 홍미로운 점은 인양사가 성전 중 성덕대왕과 연관 있는 봉덕사와 관계하고, 후술하겠지만 무장사지 석탑의 안상문이 성덕대왕릉의 상석에서 차용, 술정리 서석탑이 그러한 무장사지 석탑의 안상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16)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754~755)에 관한 논문은 이기백, 『신라 경덕왕대 화엄경 사경 관여자에 대한 고찰』, 『역사학보』83, 역사학회, 1979, 126~140쪽; 황수영, 『신발견 신라 경덕왕대 화엄경 사경』, 『역사학보』83, 역사학회, 1979, 121~126쪽; 장충식, 『신라백지묵서화엄경 경계필사자 문제』, 『동악미술사학』5, 동악미술사학회, 2004, 7~21쪽 참조.

9세기 전기에 제작된 칠곡 기성동 삼층석탑은 花頭 <침두-보주형>과 <단
 힌형> 그리고 弧部和 垂部는 <파문-수평형>으로 제작된다(도 2 참조). 무장사지
 삼층석탑과 술정리 서삼층석탑과는 花頭 <침두-보주형>과 弧部 <파문형>은
 동일하나, 花頭가 이어져서 막힌 <단힌형>이라는 점, 안상문의 조형성에 있어
 폭이 높이보다 더 큰 <수평형>을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花頭와 弧部
 간의 위치는 동일선상이 아니지만 전술한 3기의 석탑과 비교하면 거의 같은 선상
 에 위치하여 향후 등장하는 花頭와 弧部가 동일선상에 조각되는 방식으로서의
 과도기적인 양상이 간취된다. <수평형>의 등장은 기존의 석탑에서 보인 상층기
 단 한 면에 안상문 2개→1개의 안상문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즉, 기존의 상층기단 한 면에 2개씩 안상을 조성하던 양식이 1개의 조식으
 로 변화하며 생긴 공간적 여유가 안상문의 높이보다 폭이 더 큰 <수평형>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탄생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결구구조의 경우 하층기단은 앞서의
 무장사지 삼층석탑과 술정리 서삼층석탑과 동일하다.¹⁷⁾ 그러나 상층기단은 4매의
 장대석을 엮물려 결구한 구조로 다르다. 기성동 삼층석탑에서 보이는 상하층기단
 의 결구구조는 전술한 2기의 석탑 결구구조와 함께 통일신라시대 8세기에 정
 착·정립되었던 석탑의 기단부 구조에서 보이는 대표적 결구방식이다. 즉, 무장
 사지 삼층석탑, 술정리사지 서삼층석탑 그리고 기성동 삼층석탑은 통일신라시대
 8세기에 정립화된 대표적인 기단부 결구방식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
 는다. 그러나 기성동 삼층석탑은 무장사지 삼층석탑에서 나타나는 안상문의 초기
 양식을 선택적으로 차용하되, 한 면에 1개의 안상문을 새기는 방식과 花頭의
 끝부분을 연결한 <단힌형>이 보이는 점 등은 통일신라 석탑의 안상문 형식과
 양식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고 있다.

기성동 삼층석탑의 안상문 양식을 잇는 석탑으로 835년경 범어사 삼층석탑
 의 상층기단 안상문을 들 수 있다(도 6 참조). 범어사 삼층석탑은 상하층기단에 모
 두 안상문을 시문한 석탑이다. 상층기단의 안상문 花頭는 <침두-보주·괄호-
 단힌형>으로 기성동 석탑과 거의 유사하지만, 상층기단 한 면에 <침두-보주형>
 과 <침두-괄호형>이 혼재되어 나타나 <침두-괄호형>이 <침두-보주형>의 단
 순화된 양식적 변화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弧部는 <운문형>, 垂部는 <수평
 형>으로 기성동 삼층석탑의 <파문형>과 차이를 보인다. 弧部の <운문형>은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에서도 이미 선보였던 모습이다. 그러나 범어사 삼층석탑
 은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의 것에 영향을 받았다기보다 범어사 하층기단에 표현
 된 花頭 <평두형> 형식에서 나타나는 弧部の <운문형>과 垂部 <수평형>을
 참조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범어사 삼층석탑은 상하층기단 모두 4매의 장대석으

¹⁷⁾ 기성동 삼층석탑의 상층기단은 4매의 장대석을 이용하여 엮물림방식으로 결구하였으며, 하층
 기단은 ‘ㄱ’형의 귀틀석 4매를 모서리에 두고 각 사이에 ‘-’자형 석재를 삽입한 구조이다.

로 결구하였는데, 이는 9세기 성행하는 결구구조의 특징이다. 상층기단은 엇물리는 방식으로, 하층기단은 2매의 긴 장대석을 양쪽으로 두고 보다 짧은 장대석 2매를 그 사이에 끼워 결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는 기존의 무장사지 삼층석탑, 술정리사지 서삼층석탑 그리고 기성동 삼층석탑과 다른, 보다 정형화된 결구구조의 형식이다. 범어사 석탑에서 보이는 상하층기단의 결구구조와 하층기단에 시문된 안상의 형식과 양식은 범어사 삼층석탑보다 이른 시기에 제작된 9세기 전기의 성주 범수사지 삼층석탑에서도 확인된다. 범어사 삼층석탑은 9세기 들어 상층기단의 안상문의 전환점이 되었던 기성동 삼층석탑과 범수사지 삼층석탑의 형식과 양식을 결합·수용한 모습으로 또 다른 새로운 형식이 창출된 석탑이다.

예외적으로 하층기단에 시문된 안상문 중에서 기성동 삼층석탑의 형식과 양식을 잇는 석탑이 있는데, 경산 불굴사 삼층석탑이다. 상하층기단의 결구구조는 범수사지 삼층석탑과 범어사 삼층석탑과 동일하다. 하층기단에만 안상문이 시문되는 형식은 범수사지 삼층석탑과 동일하지만, 안상문의 花頭는 <침두-보주-단힌형>, 垂部는 <수평형>이 나타나 상층기단에 시문된 기성동 삼층석탑의 안상문과 동일하다. 그러나 弧部는 기성동 삼층석탑에서 보이는 <파문형>과 일반적으로 하층기단의 안상문에서 보이는 <운문형>의 중간 단계의 특징이 간취된다. 弧部와 垂部 간의 위치는 동일선상으로 범수사지 삼층석탑 이후 등장하는 하층기단의 안상문 모습을 보인다. 불굴사 삼층석탑의 안상문은 기본적으로 花頭는 상층기단의 고식적 안상 양식을 보이고 있지만, 하층기단의 공간적 특성 즉, 폭에 비해 높이가 낮은 면석의 형태와 관련하여 안상문의 조형과 各部 간의 위치는 이에 맞게 변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기성동 삼층석탑과 범어사 삼층석탑의 형식과 양식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석탑이 확인되는데, 9세기 말기~10세기 초의 김천 청암사 수도암 동삼층석탑이 있다. 花頭에서 <침두-보주·괄호형>이 혼재되어 나타나 것은 범어사 석탑과 관련지을 수 있다. 그러나 弧部 <파문형>과 垂部를 통한 안상문의 조형미는 <수평형> 그리고 各部 간의 위치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기성동 삼층석탑과 동일하다. 그리고 청암사 수도암 동삼층석탑의 경우 기성동 및 범어사 삼층석탑과 달리 花頭가 연결되지 않는 <열린형>을 갖추고 있어 안상문의 초기 형식·양식을 계승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도 8-2 참조). 그러나 단층기단의 형식 그리고 1매의 돌로 기단을 치석한 수법 등을 통해 이 석탑이 9세기 말~10세기 초의 석탑 결구구조의 형식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무장사지 삼층석탑, 술정리 서삼층석탑,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 기성동 삼층석탑, 범어사 삼층석탑, 불굴사 삼층석탑, 청암사 수도암 동

삼층석탑은, 통일신라시대 안상문이 새겨진 19기의 석탑 중에서 <침두-보주형>을 가졌다. 花頭 이외에 弧部, 垂部에 있어서도 무장사지 삼층석탑과 술정리 서삼층석탑에서 보이는 고식적 요소를 고수하려는 인상을 보인다. 시기에 따라 형식과 양식에서 다소의 변화가 이루어지지만 이들 7기 석탑의 안상문은 기본적으로 경주와의 영향 및 지역의 접근성 등 하나의 계보로 연결되는 양상을 띤다.

2) <침두-괄호형> 계열의 안상문 석탑

안상문의 花頭가 <침두-괄호형>을 보이는 석탑은 835년 범어사 삼층석탑의 상층기단에서 처음 나타난다. <침두-보주형>과 함께 혼재된 형태로 등장하며, 전술하였듯이 범어사 삼층석탑은 <침두-보주형> 계열의 특징이 강한 석탑이다. 이후 <침두-괄호형>이 나타나는 석탑은 9세기 전기~중기의 승소곡사지 삼층석탑이다.

승소곡사지 삼층석탑은 범어사 삼층석탑과 마찬가지로 상하층기단에 모두 안상문이 시문되는 형식이지만 이에 더해 초층탑신에도 안상문을 시문, 그 내부에 사천왕상을 조각하였다(도 7 참조). 이러한 형식은 통일신라시대 석탑 중 유일한 사례이다. 상하층기단 한 면에 안상문을 배치하는 수도 상층기단 2개, 하층기단 2개로, 기존의 하층기단 한 면에 3개의 안상문을 시문하는 방식과 다르며, <화형>이 아닌 <아형>이 처음 등장한다. <아형>의 안상문이 시문된 석탑은 현재 승소곡사지 삼층석탑 이외 영양 화천동 삼층석탑과, 백장암 삼층석탑의 하층기단 부재로 보이는 석재에서만 확인되어, 성행하였던 형식은 아니다. 상층기단과 초층탑신은 <화형>의 안상문을 이용하였으며, 花頭 <침두-괄호-단힌형>, 弧部는 <운문형>, 垂部는 <수직형> 그리고 花頭와 弧部는 동일선상이 아닌 위치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승소곡사지 삼층석탑의 안상문에 보이는 <수직형>과 各部 간의 위치 차이, 그리고 상층기단 한 면에 배치되는 2개의 안상문 형식은 9세기 전기 이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고식(古式)이다. 이는 승소곡사지 삼층석탑을 제작했던 지역이 경주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처음 안상문 석탑이 나타났던 경주 지역에서는 당시 고식적인 형식과 양식이 잔존하였거나, 혹은 이를 의식하고 제작했던 보수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초층탑신에도 안상문을 시문하고 내부에 사천왕상을 조각하는 등의 새로운 방식을 표현한 유연성을 보인다. 승소곡사지 삼층석탑에 나타나는 안상문은 이후 석탑과의 직간접적인 연결이 힘들어 경주 지역에서 제작된 매우 독특한 석탑이라 할 수 있다.

한편 9세기 중기 이후 가장 성행했던 안상문에서의 <침두-괄호형> 花頭는 9세기 후기 경에 조성된 도피안사 삼층석탑에서부터 하층기단에 등장하는 특

징을 보인다. 앞서의 범어사 삼층석탑과 승소곡사지 삼층석탑에서 보인 <침두-괄호형>은 상층기단에 조식되었다. 그러나 도피안사 삼층석탑 이후부터는 모두 하층기단에서만 나타나며, 한 면에 조식되는 안상문의 수는 3개, 삼중기단의 하층기단에서는 4개가 시문된다. 그리고 弧部는 <운문형>, 垂部 <수평형> 그리고 각 부 간의 위치는 동일선상이라는 공통적인 형식을 가진다. 도피안사 삼층석탑과 같이 <침두-괄호-단힌형>을 보이는 석탑은 봉화 취서사 삼층석탑, 인제 한계사지 삼층석탑, 합천 해인사 삼층석탑, 광주 증심사 삼층석탑이 있다. 이 중 해인사 삼층석탑과 취서사 삼층석탑은 삼중기단의 형식으로 한 면에 4개의 안상문을 가진다. 취서사 삼층석탑은 <침두-괄호형>과 <침두-삿갓형>이 혼재되어 나타나며, 한 면에 새긴 안상의 수가 4개로 새로운 형식적 변화가 감지되지만, <침두-괄호형> 계열의 석탑 형식 및 양식을 기본적 토대로 삼고 있다. 취서사 삼층석탑 이후 <침두-삿갓형>을 보이는 석탑은 9세기 말 통도사 삼층석탑과 9세기 말기~10세기 전기의 옥동 석탑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침두-괄호형> 계열의 석탑 형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9세기 말기, 영동 영국사 삼층석탑의 하층기단 안상문은 弧部에서 도식화된 <과문형>을 보이지만 이외에 다른 형식적 요소는 모두 동일하다.

흥미로운 점은 <침두-괄호형> 계열 석탑의 선두라 볼 수 있는 도피안사 삼층석탑이 이형석탑이라는 점임에도 불구하고 이후 전형석탑들이 안상문 花頭 방식을 <침두-괄호-단힌형>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형석탑의 기반부 하대받침인 팔각대석 한 면에 1개씩 안상을 새긴 방식을 전형석탑의 하층기단에서는 한 면에 3개의 안상으로 표현하였다. 비록 하층기단에 3개의 안상문을 처음 새긴 석탑은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이고, <침두-괄호형>의 안상문 양식은 범어사 삼층석탑에서이지만, 9세기 전기 성주 범수사지 삼층석탑의 하층기단의 안상문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범수사지 삼층석탑은 하층기단 한 면에 3개의 안상문을 새겼지만, 花頭 형식이 <평두형>이다. 花頭의 끝은 연결된 <단힌형>이며, 弧部 <운문형>, 垂部 <수평형> 그리고 각부 간의 위치는 동일선상으로 시문되었다. 안상문이 <침두-괄호형>을 보이는 석탑이든 <평두형> 석탑이든 모두 弧部는 <운문형>, 垂部 <수평형>, 각부 간의 위치는 동일선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하층기단의 면적이 높이는 낮고 폭이 넓은 조형상의 특징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평두형> 역시 <침두-괄호형>만큼 성행했어야 하지만, <평두형> 석탑은 범수사지 삼층석탑에서 등장한 이래 범어사 삼층석탑, 화엄사 서오층석탑, 통도사 삼층석탑에서만 확인된다. 이 중에서도 범어사 삼층석탑과 통도사 삼층석탑은 <침두-보주·괄호형>과 <침두-삿갓형>이 함께 혼재하며 나타나고 있어 범수사지 삼층석탑과 같이 <평두형>이 주요하게 등

장하는 사례는 화엄사 서오층석탑뿐이다. 따라서 9세기 중기에 석탑의 상층기단에 나타난 <침두-괄호형>의 花頭는 도피안사 삼층석탑을 기점으로 하층기단으로 이동하며, 9세기 이후 성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하층기단에 시문된 이들 <침두-괄호형> 계열의 안상문은 형식과 양식에 있어 하나의 계열로 구분할 수 있겠으나, <침두-보주형> 계열의 안상문처럼 서로 간의 영향관계를 통해 연결할 수 있는 근거는 희박하다. 제작된 수량도 많고, 조성 지역도 다양하며, 결구방식도 9세기 전기가 되면 이미 정형화되는 상하층기단 모두 4매의 장대석으로 결구한 방식을 따른다. <침두-괄호형> 계열의 안상문은 마치 이 시대의 일반적인 형식이니까 그 형식에 따라 제작된 듯한 인상이 강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기술하도록 하겠다.

IV. 석탑의 안상문 수용과 변화

앞서 II장과 III장을 통해 통일신라시대 안상문을 새긴 석탑의 사례와 현상 그리고 안상문의 유형분류를 통한 시기별 전개양상 그리고 석탑들 간의 영향관계를 검토해 보았다. 이를 통해 통일신라시대 석탑에서 안상문이 처음 시문된 상층기단의 배치가 일반적인 형식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일반적 형식인 하층기단의 안상문에서는 다양한 양식 변화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층기단의 안상문에서 뚜렷한 양식적 변화가 감지되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이번 장에서는 석탑에 등장하는 안상문이 여타 작품들에 비해 늦은 시기에 나타나는 원인과 상층기단에 처음 안상문을 배치한 연유, 하층기단으로의 안상문 위치 변화와 성행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1. 8세기 후기, 석탑의 안상문 수용

안상문은 삼국시대부터 불상의 대좌를 비롯하여 통일신라시대의 사리장엄구, 왕릉 앞의 床石, 배례석, 부도, 석등, 금당지 기단 등 다양한 작품에서 나타난다. 이들 중에서도 석탑에 등장하는 안상문의 시기는 8세기 후기로 현존하는 다른 한국 예술품에 비해 출현 시기가 늦은 편이다.

석탑의 표면에 안상문을 포함하여 물상(物象)이 조식되는 사례는 634년 분황사 석탑의 초층탑신에 금강역사상, 7세기 말기 경주 전(傳)구황동 폐탑지 금강역사상과 고선사지 삼층석탑의 초층탑신에 모각한 문비 등을 들 수 있다.¹⁸⁾ 그러나 분황사



도 10. 분황사 석탑, 신라, 634년, 경북 경주
現高 9.3m



도 11. 고선사지 삼층석탑, 통일신라, 7세기
말기, 경북 경주, 現高 9.0m, 국립
경주박물관 소장(박경식, 『KOREAN
Art Book 탐파』, 예경, 2001, 41쪽,
도판 6 전제)

석탑과 고선사지 석탑은 조성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분황사 석탑은 석재를 벽돌처럼 잘라 쌓아올린 조적식(造積式) 석탑이고(도 10), 고선사지 석탑은 가구식(架構式)으로 통일신라시대 새롭게 등장한 전형양식 석탑이다(도 11). 안상문이 조각된 무장사지 삼층석탑 역시 전형양식의 석탑이다. 전형양식의 석탑에 彫像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8세기 후기부터이다. 이 시기 석탑의 초층탑신에는 사천왕상과 금강역사상, 상층기단에는 십이지신장상과 팔부중상 등을 부조하였다. 이는 통일신라시대 전형양식의 석탑이 정착되는 시기와 궤를 함께 한다. 안상문 역시 이들과 같은 시기인 8세기 후기 이후부터 등장한다.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전개에 있어 핵심은 석재 수의 감소와 이에 따른 기단부의 변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통일신라시대 새롭게 등장한 전형양식의 석탑이 정착·정립되는 시기인 8세기 중기는 기단부 결구구조가 안정화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조성된 석탑에서는 공교롭게도 7세기 말기 고선사지

18) 傳구황동 폐탑지 금강역사상의 편년은 7세기 중기~말기가 일반적이나 8세기 전반까지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7세기 중기~말기설은 문명대, 『한국탑부조상의 연구(1)-신라인왕상(금강역사상)고』, 『불교미술』4, 동국대학교박물관, 1979, 92쪽; 백남주, 『금강역사상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78쪽; 장충식, 앞의 책, 1987, 102~103쪽, 8세기 전반으로 추정하는 연구는 김은화, 『경주 구황동폐탑지의 복원적 고찰』, 『고구려발해연구』33, 고구려발해학회, 2009, 174쪽이 있다.

삼층석탑을 제외하고 物像이 석탑에 부조(浮彫)된 사례가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 결구구조가 안정화된 이후인 8세기 후기에는 석탑의 초층탑신은 물론 상층 기단에도 탱주 사이의 면석에 부조상이 등장한다. 그리고 8세기 후기~말기에는 상층기단 면석의 탱주가 2주→1주로 감소하고 팔부중상이 조상된다.

무장사지 삼층석탑에서 처음 등장하는 안상문은 상층기단 한 면에 각기 2개씩 시문하였는데, 이전까지의 석탑에 항상 등장하던 우주 2주와 탱주 2주를 생략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나아가 이후 등장하는 안상문 석탑은 우주와 탱주를 모각하지 않는 형식을 지닌다.¹⁹⁾ 안상문 석탑 이외 전형석탑에서는 우주와 탱주가 변함없이 나타나며, 우주 2주와 더불어 탱주는 그 수가 석재의 수 및 결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변화양상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초기 전형양식 석탑의 하층기단에서는 탱주가 3주, 정착·정립 단계에서는 2주 그리고 기단부에서 안정적인 기술을 토대로 다시 한 번 여러 변화를 시도하는 시기인 8세기 후기~말기의 상층기단에서는 2주→1주로 감소한다. 안상문의 등장은 이 시기 여러 변화 중 하나의 방식으로 추정된다. 당시 이미 우주와 탱주가 석탑의 구조적 기능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두 형식을 생략하고 안상을 시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우주와 탱주의 생략은 아무리 변화를 지향한 시점에 나타난 것이라 해도 기존의 보편적 석탑의 형식과 양식을 깨뜨린, 상당히 파격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기단부 결구구조에 있어서도 정립·정착 단계에서는 상층기단을 중심으로 변화를 시도하였지만, 하층기단에서의 결구구조 변화는 이 시기에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다시 말해 석탑의 형식과 양식에 있어서 파격적이고 다양한 변화의 시도가 용인되던 시기에 안상문이 석탑에 나타났던 것이다. 이는 8세기 후기의 전반 경, 초층탑신과 상층기단에 부조상이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보다 안상문이 다소 늦은 시점에 나타난 원인과도 연결된다. 즉, 기단부에 꾸준히 답습되던 탱주와 우주는 이미 여타 작품에서 흔히 나타나던 안상문을 쉽게 석탑에 등장시킬 수 없었던 방해적 요소로 작용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공간이 충분한 초층탑신도 아니고, 우주와 탱주의 형식을 생략하고 기단부에 안상문을 처음 시도하였던 점은 위치에 대한 인식 및 수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상층기단에 출현하는 안상문

통일신라시대 석탑 중 안상문이 시문된 약 19여기의 석탑은 매우 적은 수에 해당하는 수치로, 통일신라시대 석탑 중 부조상을 새긴 석탑이 약 60여기 이상인

¹⁹⁾ 영양 화천동 삼층석탑의 경우 우주와 탱주를 선각한 방식이 나타나기도 한다.

것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된다. 석탑에 안상문이 처음 시문된 위치는 상층기단에서이다. 약 19기의 석탑 중에서 상층기단에만 안상문이 시문된 석탑의 수는 4기이며, 하층기단에만 나타나는 석탑은 12기, 상하층기단 모두 혹은 그 이외 조성되는 석탑은 3기이다.²⁰⁾ 상하층기단에 안상문을 조성한 석탑을 굳이 상층기단에 조성된 안상문의 그룹에 분류한다 하더라도 7기로, 하층기단에 시문된 안상문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통일신라시대 석탑에서 안상문을 시문하는 위치가 하층기단이 일반적인 형식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처음 석탑에 안상문을 시도하였을 때의 위치는 상층기단인데 반해, 이후 조성되는 석탑에서는 하층기단에 시문한 방식이 성행한 점은 매우 흥미롭다. 그리고 이들 하층기단에 새긴 안상문에서는 다른 불교미술품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도식적이고 일반적인이며 장식적인 특징이 간취된다. 즉, 하층기단의 안상문은 기존의 익숙했던 안상의 형식과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인상을 주며, 많은 수의 안상문에 비해 양식적 변화를 크게 구분 지을 수 없다. 반면 상층기단에 안상문을 새긴 석탑의 수는 7기 정도밖에 되지 않으나 안상문에서 양식적 변화가 확인된다. 이는 초기 안상문을 조성할 때 배치한 상층기단과 이후 선택적 수용으로 인한 상층기단의 안상문이, 통일신라시대 전반에 걸쳐 성행했던 하층기단의 안상문과 비교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점은 처음 석탑에 시문된 안상문의 수용과 직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미술품에 시문된 안상문 형태에 대한 기원(起源) 연구는 火焰文說²¹⁾, 床脚說²²⁾, 蓮花文說²³⁾, 眼象說²⁴⁾, 空間說²⁵⁾ 등이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상 작품에 안상문이 처음 출현하였을 때는 의미를 지닌 채 시문되었겠지만, 이후 초기의 상징성을 잃어버린 채 도식화되어 장식적·장엄적 요소로 표현된

20) 상층기단에 시문된 4기의 석탑에는 단층기단인 청암사 수도암 동삼층석탑도 포함한 수치이다.

21) 진홍섭, 『韓國의 眼象紋樣』, 『동양학』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74, 252~254쪽 참조.

22) 앞의 논문, 250쪽; 신영훈, 『철감선사 석조보궁』, 『이간미술』27, 중앙일보사, 1983, 90~91쪽; 이기선, 『금동탄생불상에 대하여: 특히 호림박물관소장의 대좌를 중심으로』, 『초우황수영박사고회기념 미술사학논총』, 통문관, 1988, 109~115쪽; 양윤식, 『사리장치의 건축적 고찰』, 『삼은사지 동 삼층석탑 사리장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189쪽; 최공호, 『고구려 벽화의 欄기원과 쓰임』, 『항산 안휘준 교수 정년퇴임기념 논문집: 미술과 확산』2, 사회평론, 2006, 430쪽 참조.

23) 김동현, 『우리나라 木造建築에 보이는 所謂 雙S字紋彫刻에 재한 再考』, 『미술사학연구』143·144, 1979, 55쪽; 허상호, 『조선시대 불탁장엄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48쪽 참조.

24) 송민구, 『한국의 옛 조형의미』, 기문당, 1987, 77쪽 참조.

25) 이현수, 『한국 팔각당형 승탑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6쪽; 이선주, 『統一新羅時代 眼象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86~88쪽 참조.



도 12. 방형대좌금동반가사유상의 대좌 안상문
7세기 전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곽동석, 『KOREAN Art Book 금동불』, 예경, 2000, 95쪽, 도판 26 전제)



도 13. 경주 감산사지 출토 불보살상의 대좌
아래 대석의 안상문, 통일신라, 719~720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작품이 있음은 분명하며 많은 수량을 차지할 것이다. 따라서 안상의 상징적 의미 혹은 기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안상이 표현된 초기 작품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삼국시대부터 안상문이 석탑에 나타나는 8세기 후기 이전의 안상문은 불상의 대좌, 사리장엄구, 왕릉 앞의 床石 등에서 확인된다. 8세기 후기 이후가 되면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부도, 석등, 배례석, 금당지 기단 등에 조식된 안상을 쉽게 볼 수 있다. 삼국시대~8세기 후기 이전, 안상문이 나타나는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상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7세기 방형대좌금동반가사유상의 대좌(도 12), 719년~720년에 조성된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상과 아미타불입상의 대좌(도 13), 722년 관룡사 불상의 대좌, 8세기 중기



도 14. 석굴암 10대 제자상 중 右에서 제8·9·10상의 하부 석재의 안상문, 통일신라, 8세기(『石窟庵』, 예경산업사, 1989, 118쪽, 도판 86 전제)

석굴암의 10대 제자상과 사천왕상이 부조된 석판을 받치는 하단부 석재(도 14) 및 감실 내 유마거사상의 대좌, 장항리사지 금당지 내의 대좌 그리고 석장사지 탑상문전 중 탑 기단부 등이 있다. 사리장엄구는 682년 감은사지 동서삼층석탑의 전각형사리기도 15), 8세기 후기 불국사 서삼층석탑 발견 전각형사리기도 16) 등에



도 15. 경주 감은사지 석탑 내 발견 전각형사리기 기반부 안상문, 통일신라, 682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사진 제공 : 한정호)



도 16.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내 발견 전각형사리기 기반부 안상문, 통일신라, 8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사진 제공 : 한정호)



도 17. 경주 성덕대왕릉 상석의 안상문, 통일신라, 8세기, 경북 경주



도 18. 경주 성덕대왕릉 상석의 안상문 세부

서 확인되며, 왕릉 앞의 床石으로는 성덕대왕릉의 상석을 들 수 있다(도 17). 전술한 안상문 중에서 무장사지 석탑의 안상문과 상당한 친연성을 보이는 것은 성덕대왕릉의 상석뿐이다.²⁶⁾ 성덕대왕릉의 상석에 시문된 안상의 형태는 <花形>이며, 花頭는 <침두-보주형>, 花頭의 끝은 이어지지 않은 <열린형>이다. 弧部는 <과문형>과 <운문형>이 함께 나타나며, 垂部는 <수직형>이며, 各部 간의 위치는 차이를 보여 무장사지 삼층석탑의 안상문의 형식 및 양식과 동일하다(도 18). 이전 시기에 많은 안상문의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덕대왕릉 상석의 안상문을 수용한 것은 무장사지 석탑에 새긴 안상문의 상징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통일신라시대 왕릉에는 제사시설로서의 床石이 설치되는데, 성덕대왕릉에서 처음 등장한 탁자형 상석의 형태는 당시 제상(祭床)의 형식과 같은 모습일 것으로 추정된다.²⁷⁾ 즉, 상석의 용도를 통해 안상문은 床의 형태를 형상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수용한 무장사지 석탑의 안상문은 기존의 상각설(床脚說)과 관련지을 수 있을 것이다. 상석은 4매의 판석으로 조립되었고 상석의 윗면은 2매

²⁶⁾ 김지현, 앞의 논문, 2014, 271쪽.

²⁷⁾ 이근직, 『新羅王陵 床石의 등장과 변화』, 『경주문화논총』8, 경주문화원, 2005, 42·48쪽.



도 19. 경주 성덕대왕릉 상석의 아랫면의 세부

의 판석으로 구성되었다. 상석의 구조는 석탑의 상층기단 결구방식 중 4매의 장대석을 가지고 2매의 석재를 2매의 긴 장대석 사이에 삽입하는 구조와 동일한 모습이며, 상석의 윗면은 상층갑석과 연결되는 모습이다(도 17 참조). 상석의 아랫면 역시 2매의 판석으로 이루어졌는데, 마치 하층기

단 상면의 모습을 연상시키듯 하층기단 갑석에 해당하는 방향의 받침과 그 위로 상층기단 받침과 같이 호형 그리고 얇은 각형으로 구성되었다(도 19). 석탑의 상층기단과 유사한 장방형의 상석 형태와 구조적 특징은 무장사지 삼층석탑의 상층기단에, 상석에 시문된 안상문이 차용될 수 있는 근원적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무장사지 석탑의 안상문이 床脚을 형상화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듯하다. 상석에 시문된 안상문을 祭床으로 의식하고 탑에 새겼든, 상석의 것을 그대로 차용했던 床脚임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즉, 통일신라시대 석탑에 처음 등장하는 안상문은 상석의 床脚을 수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통일신라시대 석탑에 새겨진 안상문이 모두 床脚을 형상화했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하층기단으로 안상문의 위치가 변화되고 성행하는 과정을 서술하면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3. 하층기단으로의 안상문 위치의 변화와 성행

현존하는 석탑 중 하층기단에 안상문이 등장하는 사례는 8세기 말~9세기 전기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이다(도 3 참조). 이 탑은 이형석탑으로 상층기단은 5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에 승상을 비롯하여 네 모서리에 사자상의 기둥이 탑신부를 받치는 구조여서 무장사지 삼층석탑과 술정리 서삼층석탑과 같이 상층기단에 안상문을 새길 면석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석탑의 조형적 특징에 의해 안상문은 자연스럽게 하층기단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안상문 내부에는 주악천인상이 새겨져 있는데, 통일신라시대 석탑 중 안상문 내에 부조상이 확인되는 사례는 4기 가량 파악된다. 8세기 말기~9세기 전기의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 이외, 9세기 전기~중기의 화엄사 서오층석탑은 하층기단에 십이지신장상, 승소곡사지 삼층석탑은 초층탑신에 사천왕상을, 9세기 중기~후기의 화천동 삼층석탑은 하층기단에 십이지신장상을 부조하였다.

석탑 이외 안상문 내부에 조각이 나타나는 형식은 불교공예품인 감은사지 삼층석탑의 전각형사리기 기단부에서 확인 가능하다(도 15 참조). 환조의 공예품이기 때문에 부조로 표현된 석탑보다 다른 시각을 제공해 준다. 감은사지 전각형사리기에는 안상 너머로 조각을 새기고 있어 안상과 부조상이 별도의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3차원적인 현상을 2차원적인 석탑의 표면에 새길 경우 안상과 부조상은 한 면에 중첩·결합된 상태로



도 20. 경주 석굴암 본존불 대좌에 나타나는 공간의 모습(황수영·안장현, 『石窟庵』, 예경산업사, 1989, 73쪽, 도판 32 전제)

로 조성된다. 따라서 부조상이 새겨진 안상문은 부조상과 안상 사이에 공간성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²⁸⁾ 사실 床脚으로 표현된 안상 역시 공간성을 내포하고 있다. 상각의 안상 내부는 상각 사이에 뚫린 공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은사지 사리기에 표현된 조형을 살펴보면 상각으로 인한 공간 속에 조각상이 있다기보다 실제 어떤 공간과의 경계를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즉, 외부에서 바라볼 때 건축물의 부재(部材) 혹은 휘장 및 장막 등의 실루엣을 형상화시킨 것으로 짐작된다.²⁹⁾ 이는 안상과 함께 표현된 우주와 탕주를 통해서도 추정할 수 있는데, 이 사리기의 기단부에 표현된 우주와 탕주는 건축물의 기둥을 의미하고 기단부를 통해 상징되는 건축물 자체는 사리와 사천왕, 승상이 있는 난간으로 둘러진 세계와 다른 세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안상 내에 새긴 부조상은 신장상과 공양보살상으로 추정되는데, 마치 그들의 세계를 안상 너머로 볼 수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이와 비견되는 유사한 공간으로 석굴암 본존의 대좌(도 20)와 불국사 무구정광탑(다보탑)의 上部의 조형 등을 들 수 있다.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의 경우 안상문이 하층기단으로 이동된 것을 제외하

28) 안상을 공간적 개념으로 파악한 논문은 이현수, 앞의 논문, 16쪽; 이선주, 앞의 논문, 86~88쪽; 김지현, 앞의 논문, 271쪽, 안상 안에 부조상을 새길 경우 안상을 龕으로 파악한 연구는 이연수, 앞의 논문, 64쪽 등이 있다.

29) 김지현, 앞의 논문, 271쪽, 감은사지 전각형사리기는 아니지만 안상의 기원을 상 혹은 榻 위의 천 또는 佛衣 자락이 흘러내린 모습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곽애경, 『韓國造形物에 나타나는 眼象 및 風穴樣式에 관한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11쪽; 최공호, 앞의 논문, 430쪽, 각주 9; 이종석, 『한국의 목공예』上, 열화당, 2001, 242~243쪽).



도 21. 대구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대좌 중대석의 운룡문의 모습(국립경주박물관, 『新羅의獅子』, 2006, 42쪽, 도판 22 전제)

면 안상문의 양식이 이전 2기의 석탑과 동일하므로 먼저 상각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층기단의 안상과 부조상이 상각으로 인한 공간 속에 배치된 형상, 이를 3차원 공간 속에서 재배치하면 상각의 앞쪽에서 마치 탑을 두르듯 위치한 주악천인상의 모습이 될 것이다.

물론 감은사지 사리기에서 보이는 안상 너머의 부조상과 같이 어떠한 세계 속의 공간을 표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전자와 후자의 공통점은 안상의 공간성이 부각된다는 점이다. 더불어 부조상이 주악천인상임을 주목할 때 안상은 구름 혹은 상서로운 기운을 단순하게 형상화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시기는 다소 늦지만 9세기 불상 중 대좌의 중대석에 서기(瑞氣)와 같은 구름 속에 용이 배치된 구체적인 형상이 제작되기도 한다(도 21). 이는 안상에 내포된 기본적인 공간적 개념을 토대로, 안상의 기원과 상징성을 작품 전체의 조형 속에서 파악해야 하며, 나아가 석탑에 시문된 안상문이 단일한 상징성과 기원을 갖지 않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도 22. 양주 수증사 오층석탑의 안상문 모습, 조선시대, 1493년, 現高 3.0m(박경식, 『KOREAN Art Book 탐파』, 예경, 2001, 365쪽, 도판 124 전제)

이는 조선시대 석탑에 나타나는 안상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조선시대 석탑에서는 목탑의 양식을 석탑에 구현하면서 목조 난간에 투각된 문양이 마치 안상처럼 자주 표현되는데(도 22), 이는 목조 건축물의 난간 표면에 투각된 풍혈(風穴)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되어 또 다른 안상문의 기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³⁰⁾

물론 초기에는 어떠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표현된 안상문이, 이후 형식

화·도식화되어 장식적·장엄적으로 제작된 경우가 많음은 자명하다. 이는 언뜻 보면 9세기 석탑 하층기단의 안상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왜 이 시기에는 상층기단보다 하층기단에 조식된 안상문 형식이, 일반적인 양식으로 성행할까?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무장사지 삼층석탑의 안상문이 床脚의 형태일 경우 이 석탑은 床 위에 사리장엄구를 안치한 초층탑신을 받치는 형상이 된다. 이는 안상문의 형태는 다르지만 8세기 후기 불국사 서삼층석탑의 전각형사리기(도 16 참조)와 비견된다. 불국사 서삼층석탑에서 발견된 목서지편에 의하면 전각형사리기를 ‘금당(金堂)’으로 지칭하고 있어 사리가 봉안되는 사리기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³⁰⁾ 더불어 동일한 목서지편에서 불국사 서삼층석탑의 초층탑신을 ‘금당석(金堂石)’으로 지칭하고 있어 흥미롭다.³¹⁾ 그런데 해당 내용이 기술된 목서지편이 고려시대의 것이어서 고려의 시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신라시대 8세기 후기 이후가 되면 佛塔이 부처의 무덤이 아닌 상주처(常住處)라는 인식, 그리고 이는 불탑과 불상을 동일시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조형적으로 표현되는데, 대표적으로 도피안사 삼층석탑을 들 수 있다. 이 석탑은 기단부를 불상의 대좌형식으로 조성하였으며, 8세기 후기 이후의 불상 대좌에는 불탑 기단부에 조성하던 신장상이 조식되기도 한다. 또한 초층탑신에 사방불 및 보살상 등이 조각되기도 한다.³²⁾ 그리고 8세기 후기 석탑의 초층탑신에 사리공이 등장한 이후, 석탑에 부조된 像의 위치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 9세기 특히, 후기가 되면 초층탑신에 새기던 제석·범천을 위시한 사천왕상 및 금강역사상들의 위치가 기단부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부처가 머무는 초층탑신과의 위계를 위한 조형적 발현으로 볼 수 있다.³⁴⁾ 이러한 상징성이 석탑에 부여될 때 무장사지 삼층석탑의 기단은 건축적으로는 탑신부를 올리기 위한 기본적인 단이지만, 상징적으로는 불상이 머무는

30) 김지현, 앞의 논문, 271~272쪽; 안상과 風穴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논문은 곽애경, 앞의 논문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불상대좌에 장식된 안상문을 풍혈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안상의 시초는 대좌의 기원을 두고 안상의 개념을, 존엄성을 표현하기 위한 장식이라고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31) …銅鍍金金堂一坐四面銘蘭草蓮□□脚臺堂內銅鍍金仰蓮花坐…(노명호·이승재, 『釋迦塔에서 나온 重修文書의 判讀 및 譯註』, 『불국사 석가탑 유물2-증수문서』, 국립중앙박물관·대한불교조계종, 2009, 72쪽).

32) …下層金堂石方廣四尺□[村厚]□(尺)三寸下是白內在…(노명호·이승재, 앞의 책, 2009, 73쪽).

33) 김지현, 앞의 논문, 272쪽.

34) 김지현, 『통일신라 佛塔의 四天王像과 그 의미』, 『문물연구』17,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10, 103~104쪽. 통일신라시대 석탑이 불교의 육계, 색계, 무색계를 상징하는 것에서 출현했다는 견해도 있다(최민희, 『통일신라 삼층석탑의 출현과 조탑공덕경과의 관계』, 『불교고고학』3, 위덕대학교박물관, 2003, 68쪽).



도 23. 금동약사여래입상의 대좌 아래 床의 안상문, 통일신라, 8세기 후반, 미국 보스턴박물관 소장 (곽동석, 『KOREAN Art Book 금동불』, 예경, 2000, 172쪽, 도판 55 전제)



도 24. 석조비로자나불상의 대좌 아래 대석의 안상문, 통일신라, 9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국립중앙박물관,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 2008, 170쪽, 도판 84 전제)

금당을 받치는 단이자 곧 귀한 것을 받치는 단 또는 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왕릉 앞의 상석이 제사의식을 위한 귀중한 단이자 상이고, 불국사 전각형사리기는 사리가 봉안되는 귀중한 금당이자 금당을 받치는 기단을 공예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즉, 공예화 된 금당의 기단은 중요한 것을 받치는 상의 역할로 전이가 가능하다. 건축적으로 기단은 본체의 건축물을 공고히 받치기 위한 기초적 기능을 하지만, 신앙적·상징적 의미가 결합되면 귀중한 것을 받치기 위한 상과榻(榻)의 의미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³⁵⁷ 불상의 경우 7세기 방형대좌금동반가사유상의 답할연좌(踏割蓮座) 아래 표현된 방형의 대좌, 감산사 미륵보살 및 아미타불입상 연좌 아래의 팔각대석, 석굴암의 주벽 부조상 및 사천왕상의 하단부 안상과 보스턴박물관 소장 금동약사불입상(도 23)의 연좌 아래 받침이 곧 床이며, 이는 9세기의 석불대좌 아래 등장하는 팔각대석으로 이어진다고 생각된다(도 24).

³⁵⁷ 귀중한 것을 받치는 床과榻에 대해 견해는 이기선, 앞의 논문, 113~114쪽; 최궁호, 앞의 논문, 430쪽 참조.

9세기가 되면 석불대좌 아래 대석을 마련하고 안상문을 시문 혹은 그 내부에 사자상을 조각하는 형식이 유행한다. 이는 도피안사 삼층석탑의 3중 연화대좌형 기단부 아래 팔각 대석을 두고, 그 대석에 안상문을 시문한 방식과 동일하다. 도피안사 삼층석탑은 불교미술에 있어 불상과 불탑의 상징성을 조형적으로 호환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석탑을 통해, 9세기에는 불탑의 초층탑신을 부처가 상주하는 공간으로 생각하는 당시의 인식이 보다 구체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사리공이 있는 초층탑신이 곧 불상이며, 상층기단은 불상의 대좌, 하층기단은 불상 대좌의 하대받침과 연결하였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도피안사의 탑신 대신 불상을 안치하면 당시 성행하던 불상의 대좌형식과 완벽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하층기단에만 안상문이 시문된 방식은 도피안사 삼층석탑 이전의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 범수사지 삼층석탑, 화엄사 서오층석탑에서도 확인되는데, 안상문의 형식과 양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도피안사 삼층석탑 이후에 조성된 석탑들은 도피안사 석탑의 것과 같은 방식의 안상문으로 조성·성행한다. 그런데 이 당시 불상 대좌 아래의 팔각대석에 시문된 안상문이 도피안사 삼층석탑의 그것과 동일한 형식과 양식이 많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이는 9세기 불상 대좌의 팔각대석과 9세기 석탑 하층기단에 조각된 안상문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9세기 석탑 하층기단의 안상문은 불상 대좌의 팔각대석에 시문된 안상과 비교되는 형식이라 추정된다. 물론 9세기 석탑의 하층기단에는 안상문 내부에 사자상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 이는 하층기단에 안상문은 시문하였지만 내부의 사자상은 생략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자상을 차치하고서도 하층기단 안상 내부에 조상을 새기는 형식이 그다지 성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 이외 2기의 탑에서만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록 나말려초 혹은 고려시대이긴 하지만 군위지보사 삼층석탑과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의 하층기단에는 안상문을 생략하고 사자상을 배치한 형식이 나타나고 있어 불상 대좌의 대석과 불탑의 하층기단 간의 상호조형 관계



도 25. 보원사지 삼층석탑 하층기단에 부조된 사자상, 고려 전기 10세기, 충남 서산(박경식, 『KOREAN Art Book 탐파』, 예경, 2001, 260쪽, 도판 85-2 전제)

를 다시 한 번 짐작해 볼 수 있다(도 25). 9세기 후기에 들어 하층기단에 안상문이 시문되는 형식이 유독 성행하는 이유는, 불상과 불탑을 동일시하는 인식 하에 제작된 불교미술품 간의 조형적 호환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도 피안사 삼층석탑의 하대대석 이후 나타나는 석탑의 하층기단 안상문은 동시대 불상 대좌의 팔각대석의 안상문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는 상층기단에 처음 등장한 안상문과 양식적 수용의 주체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더불어 석탑 안상문의 경우 상징성은 동일할 수 있지만 양식적 수용 및 전개가 다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통일신라시대 석탑에 나타난 안상문은 왕릉 앞 상석의 안상문에서 수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처음 석탑에 나타난 안상문의 상징적 의미는 상각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부조상이 조상된 안상문이 나타나는 석탑의 경우 이와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 9세기 후기 이후 등장하는 하층기단의 안상문은 동시기 불상대좌에 보이는 문양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유추, 그리고 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조선시대 석탑의 안상문은 목탑의 난간에 보이는 풍혈 등으로 추정되어, 석탑의 안상문은 작품의 성격에 따라 상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혹은 상징성을 같으나 양식적 수용 주체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석탑은 물론 통일신라시대의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안상문이 동일한 기원을 갖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나아가 굳이 상징성을 내포한 명칭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단일화된 용어의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통일신라시대 안상문이 시문된 석탑에 대해 안상문의 유형분류와 전개양상을 토대로 8세기 후기 석탑에 처음 등장하는 안상문의 수용과 하층기단으로의 변화와 성행 그리고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흐름 속에서 안상문이 석탑이 출현하는 배경 등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신라시대 안상문이 처음 등장하는 시기는 8세기 후기로 경주 무장사지 삼층석탑의 상층기단에서 확인된다. 이는 삼국시대부터 다른 미술품에 표현된 안상문보다 비교적 늦은 시기에 해당한다. 안상문이 등장하는 무장사지 석탑은 전형양식의 석탑이다. 전형양식의 석탑은 통일신라시대 새롭게 나타난 석탑양식으로, 등장 이후부터 이 석탑양식은 석재를 사용한 가구식 석탑의 구조적 안전과

정립화를 모색한다. 이 과정에서 결구구조를 중심으로 한 석탑의 형식이 정착·정립되는 시기까지 석탑의 표면 특히 기단부에는 거의 장식이 등장하지 않는다. 8세기 후기는 시기적으로 석탑의 형식이 정립되고, 다양한 변화가 시도된다. 초층기단과 상층기단에 본격적으로 부조상이 등장하며, 상층기단의 탱주가 2주 → 1주로 감소하며 팔부중상을 새기기도 한다. 나아가서는 하층기단 결구구조의 변화를 꾀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는 이 시기 안상문이 석탑에 등장하게 된다. 부조상이 석탑에 막 시도되었을 때도 안상문은 등장하지 않는데, 이는 석탑의 특징적 형식인 탱주 및 우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상문은 탱주와 우주를 생략한 채 시문되는데, 오랜 기간 동안 기존의 고착화된 형식을 버리고 새로운 彫像을 시도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무장사지 석탑의 상층기단에 시문된 안상문의 모습은 기존의 미술품의 것과 매우 다르다. 그러나 성덕대왕릉의 상석에 새겨진 안상문은 무장사지 석탑의 것과 동일한 형식과 양식을 보인다. 일반적이지 않은 안상문이 두 작품에서 모두 확인된다는 것은 무장사지 석탑이 성덕대왕릉의 상석에 새겨진 안상문을 수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성덕대왕릉의 상석은 제사의식을 위한 용도이며, 제사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상석의 안상은 床脚을 형상화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수용한 무장사지 석탑의 안상문 역시 床脚의 상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제작하였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지금까지 다양한 안상문의 기원설이 제기되었으나 적어도 통일신라시대 석탑에 처음 등장한 안상문은 이 설들 중에서 床脚說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석탑의 안상문은 이미 상징성을 지니며 사용되던 초기 안상문들 중에서 床脚을 형상화한 안상문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렇다고 불교미술품에 나타나는 안상문이 모두 상각에 기원을 둔다는 것은 아니며, 같은 석탑이라도 조형적 성격에 따라 안상문의 상징성은 달라질 수 있음을 기술하였다. 이는 안상의 용어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상징성이 다른 안상을 단일 용어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용례라 생각한다. 석탑에서만도 안상의 표현에 다양한 상징성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 당장 불교미술품에 등장하는 안상의 용어를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眼象’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신라시대 안상문 석탑은 8세기 후기에는 상층기단에 등장하고 9세기 들어 하층기단으로 안상문의 위치가 변화하고 성행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 시문되는 안상문의 형식과 양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는 안상문의 세부적인 유형분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석탑 간의 관계를 검토해 본 결과 상층기단을 중심으로 한 <침두-보주형> 계열과 하층기단을 중심으로 한

<침두-괄호형> 계열의 안상문 석탑으로 구분되었다. 전자의 경우, 일반적인 안상문의 형식과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석탑 조성 시 직·간접적인 영향관계 그리고 안상문의 변화 양상을 추정할 수 있었다. 후자의 경우, 유독 도피안사 삼층석탑 이후부터 성행하는데, 이러한 흐름은 석탑들 간의 영향관계가 아니라 동시기 불상에서 찾을 수 있었다. 즉 당대의 불상과 불탑을 동일시하는 사상적·신앙적 배경은 조형적으로도 표현되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도피안사 삼층석탑이다. 도피안사 삼층석탑은 이형양식의 석탑으로 기단부는 삼중의 연화대좌에 팔각대석을 가진다. 이는 동시기 불상의 대좌와 동일한 형식으로, 불상의 대좌 특히, 팔각대석에는 안상문 혹은 안상문 내에 사자상(獅子像)과 화문상(花文像) 등을 시문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도피안사 석탑의 기단부 팔각대석을 전형양식의 석탑에서는 하층기단으로 대치하였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외에도 통일신라시대 안상문 석탑은 크게 8세기 말기~9세기 전기, 9세기 전기~중기, 9세기 후기~말기, 9세기 말기~10세기 전기의 네 시기로 양식적 전개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안상문이 시문된 석탑에 국한하여 고찰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다른 불교미술품을 비롯하여, 여타 작품들에 표현된 안상문까지 확대하여 적용시키기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통일신라시대 미술품에 등장하는 안상문의 한 부분으로서, 앞으로 전개될 안상문 연구에 있어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 투고일 2015년 1월 24일 | 심사완료일 2015년 2월 26일 | 게재확정일 2015년 2월 28일 ■

참고문헌

<사료>

『三國史記』

<국내>

- 진홍섭, 『韓國의 眼象紋樣』, 『동양학』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74.
- 김동현, 『우리나라 木造建築에 보이는 所謂 雙S字紋彫刻에 재한 再考』, 『미술사학연구』143·144, 1979.
- 문명대, 『한국탑부조상의 연구(1) : 신라인왕상(금강역사상)고』, 『불교미술』4, 동국대학교박물관, 1979.
- 이기백, 『신라 경덕왕대 화엄경 사경 관여자에 대한 고찰』, 『역사학보』83, 역사학회, 1979.
- 황수영, 『신발견 신라 경덕왕대 화엄경 사경』, 『역사학보』83, 역사학회, 1979.
- 문명대, 『仁陽寺金堂治成碑文의 한 考察 : 佛敎 造形活動의 經濟的 側面을 中心으로』, 『新羅伽倻文化』11, 1980.
- 신영훈, 『철감선사 석조보궁』, 『이간미술』27, 중앙일보사, 1983.
- 곽애경, 『韓國 造形物에 나타나는 眼象 및 風穴樣式에 관한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진홍섭 편저, 『국보11-탑과 I』, 예경산업사, 1986.
- 송민구, 『한국의 옛 조형의미』, 기문당, 1987.
- 장충식, 『新羅石塔研究』, 일지사, 1987.
- 이기선, 『금동탄생불상에 대하여 : 특히 호림박물관 소장의 대좌를 중심으로』, 『초우황수영박사고회기념 미술사학논총』, 통문관, 1988.
- 황수영·안장현 『石窟庵』, 예경산업사, 1989.
- 한국고대사회연구소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3,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 고유섭, 『佛國寺의 舍利塔』, 『高裕變全集』3, 동방문화사, 1993.
- 백남주, 『금강역사상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이연수, 『新羅後期 禪師塔의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진홍섭, 『한국의 석조미술』, 문예출판사, 1995.
- 하일식, 『昌寧 仁陽寺碑文의 研究 : 8세기 말~9세기 초 신라 지방사회의 단면』,

- 『한국사연구』95, 한국사연구회, 1996.
- 곽동석, 『KOREAN Art Book 금동불』, 예경, 2000.
- 남풍현, 『昌寧仁陽寺碑銘』, 『吏讀研究』, 태학사, 2000.
- 양윤식, 『사리장치의 건축적 고찰』, 『감은사지 동 삼층석탑 사리장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 정영호, 『한국의 석조미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박경식, 『KOREAN Art Book 탑과』, 예경, 2001.
- 이종석, 『한국의 목공예』上, 열화당, 2001.
- 박경식, 『통일신라 석조미술 연구』, 학연문화사, 2002.
- 허상호, 『조선시대 불탁장엄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강우방·신용철, 『탑』, 솔, 2003.
- 최민희, 『통일신라 삼층석탑의 출현과 조탑공덕경과의 관계』, 『불교고고학』3, 위덕대학교박물관, 2003.
- 소재구, 『新羅下代와 高麗時代 僧塔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이현수, 『韓國 八角堂形 僧塔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장충식, 『신라백지목서화엄경 경제필사자 문제』, 『동악미술사학』5, 동악미술사학회, 2004.
-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라남도의 석탑』 I, 2005.
- 이근직, 『新羅王陵 床石의 등장과 변화』, 『경주문화논총』8, 경주문화원, 2005.
- 이선주, 『統一新羅時代 眼象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국립경주박물관, 『新羅의 獅子』, 2006.
- 최공호, 『고구려 벽화의 탑(榻) : 기원과 쓰임』, 『항산 안휘준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2, 사회평론, 2006.
- 창녕군·우리문화재연구원, 『昌寧 술정리 서삼층석탑 및 석빙고 주변 : 문화유적 시·발굴조사』, 2007.
- 국립중앙박물관,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 2008.
- 박경식, 『한국의 석탑』, 학연문화사, 2008.
- 박홍국, 『昌寧 仁陽寺碑文의 塔 關聯記事에 대한 검토』, 『신라문화』3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8.
- 김은화, 『경주 구황동페탑지의 복원적 고찰』, 『고구려발해연구』33, 고구려발해학회, 2009.
- 노명호·이승재, 『釋迦塔에서 나온 重修文書의 判讀 및 譯註』, 『불국사 석가

- 탑 유물2-중수문서』, 국립중앙박물관·대한불교조계종, 2009.
- 김지현, 『慶州 錫杖寺址 博佛 研究』, 『미술사학연구』266, 한국미술사학회, 2010.
- 김지현, 『통일신라 佛塔의 四天王像과 그 의미』, 『문물연구』17, 동아시아문물 연구학술재단, 2010.
- 이순영, 『華嚴寺 四獅子三層石塔의 건립시기에 關한 考察』, 『문화사학』34, 한국문화사학회, 2010.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상북도 석탑』7, 2013.
- 김지현, 『경주 螭藏寺址 史蹟과 삼층석탑에 대한 再考』, 『신라문화』43,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4.

<국외>

-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解說』, 1915.

Abstract

A Consideration on the Ansang pattern of Stone Pagoda in Unified Silla Period

Kim, Ji-Hyun

This thesis grasped the aspect of development and classification of type of Ansang pattern that appeared in stone pagoda at Unified Silla Period, and comprehensively examined causes, introduction and changes that Ansang pattern in stone pagoda appeared later than other works, and relationship between stone pagodas that carved Ansang pattern based on this. The stone pagoda in the early Unified Silla Period when Ansang was carved was the Mujangsaji stone pagoda created at late 8th century, and about 19 units of stone pagoda carved with Ansang pattern were identified. I could solve several questions regarding Ansang pattern stone pagoda through aspect of development and classification of type of Ansang pattern carved on these stones.

First of all, the late 8th century, the time of appearance that Ansang pattern appeared at stone pagoda might be regarded to be later than Ansang pattern that appeared in various kinds of artworks since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Such late appearance is closely related to development of typical stone pagoda of Unified Silla Period. That is, stone pagoda of the typical form that newly appeared at Unified Silla Period was created at the time when the form was established following the stone pagoda of the early times. It is connected to stabilization of joint structure of traditional form of stone pagoda. After the 8th century when the foundation of traditional form of stone pagoda was stabilized and joint structure was established, appearance of reliefs on stone pagoda is outstanding. In addition, at the late or end of 8th century, change of lower

foundation was explored out of stabilized foundation, soldier pile at the upper foundation decreased from 2 weeks → 1 week. Such decrease brought in appearance of new icons called Palbujungsang at the upper foundation. Ansang pattern appeared over the change of omitting 1 unit of soldier pile as well as 2 units of corner pillar. In addition, the reason why Ansang pattern appeared later than other patterns carved on stone pagoda was estimated to be, in part, soldier pile and corner pillar which were fixated in the form of stone while no actual functions.

Second, there is one remarkable part in terms of the aspect of development and classification of Ansang pattern carved on the stone pagoda. While early Ansang pattern appeared at the upper foundation of stone pagoda, this form is not normal type but Ansang form carved on the lower foundation was very popular in the stone pagoda of the 9th century. And the Ansang pattern that appeared at the upper foundation of Mujangsaji is the form of the Ansang pattern that could not be found in existing works. Form of Ansang pattern that appeared first at stone pagoda showed only similar aspect as the table legs(床脚) of King Seongdeok tomb so that Ansang pattern of stone pagoda at the initial phase was borrowed from the stone table of royal tomb. In addition, it can be inferred that the Ansang imitated the table legs(床脚). It is directly related to symbolism of Ansang pattern that appeared first at stone pagoda. It could be confirmed that Ansang pattern of all stone pagodas did not necessarily express the shape of the table legs(床脚) through Ansang at stone pagoda that implemented wood pagoda of the Joseon Dynasty and relief statue of Ansang.

At last, form of Ansang pattern that appeared at upper foundation, different from Ansang pattern at the lower foundation, showed aspects of change based on form of Ansang pattern of stone pagoda of Mujangsaji at the early phase, but intention not to lose initial form was clearly reflected in the form of peak and arc of Ansang. Through this, 7 units of stone pagoda carved with Ansang pattern at the upper foundation were found to have affected each other directly and indirectly when 7 units of stone pagodas were created. It can be also checked at the connection

structure of the foundation. In particular, west stone pagoda of Suljeongri was found to have been created under direct and close relations and effects of stone pagoda of Mujangsaji, Gyeongju. Further Ansang pattern of stone pagoda's lower foundation in Unified Silla unlike them of stone pagoda's upper foundation borrowed from the Aansan pattern which were carved at the pedestal of statue of the Buddha and had a great vogue

Key Words : Unified Silla, Stone Pagoda, Ansang, Mujangsaji(鬲藏寺址),
Foundation, Connection Structure, Relief Statue(浮彫像)